

진실은 승리한다

—유서대필 조작사건 백서—

유서대필 조작사건 백서

“이미 모든 사실은
 저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밝힌 진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수 많은 증거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저에 대한 재판은
 검찰의 부도덕함과 타락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내리는 재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피고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법정에 설 것입니다.”

검찰출두성명서 중에서



전국민족

인권정보자료실
ROK1.13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National Democratic Alliance of Korea

■추모시■

김기설동지여 다시 살아나소서

진 관

김기설 동지여
김기설 동지여
다시 살아나소서

가시는 길 험한 길
가시밭 길 황토 길
피눈물 흘리며 가는 길
김기설 동지여
우리 곁을 홀로서 떠났습니다.

김기설 동지여
김기설 동지여
이 나라는 당신의 죽음을 보고
이 민족은 당신의 죽음을 보고
살아있는 우리들은
피눈물 흘릴 때가 아닙니다.

당신이 외친 학살정권을 타도하고
당신이 외친 민자당을 해체하고
당신이 외친 민중이 주인된 세상
당신이 외친 민족이 통일된 세상

기필코 살아있는 우리가 해낼 것입니다.

김기설 동지는 어두운 세상에 햇불이 되어
김기설 동지는 분단의 땅위에 통일꾼 되어
역사앞에 당당한 당신의 외침 소리
우리들 가슴속에 뜨거운 심장이 되어
우리들 온몸에 뜨거운 피가 되어
우리들 가슴속에 피가 되어 쏟아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울지 말고
그러니 이제는 슬피 말고
이 나라에서 당신을 학살하였으니
이 나라 독재자는 당신을 학살하였으니
우리 민중 주인되어
김기설 동지의 외침소리
길이 길이 큰 뜻 이어 나가야 합니다.

김기설 동지여
김기설 동지여
다시 살아나소서

진실은 승리한다

—유서대필 조작사건 백서—

1991年12月12日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전화: (02)743-9127 · 8 FAX: 742-6289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회
한국기독교사회운동연합회
민족자주·통일불교운동협의회
천주교사회운동협의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합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서울민족민주운동협의회
인천지역민족민주운동연합회
경기북부민족민주운동연합회
경기남부민족민주운동연합회
강원민족민주운동연합회
충북민족민주운동연합회
대전·충남민족민주운동연합회

전북민족민주운동연합회
대구·경북민족민주운동연합회
경남민족민주운동연합회
부산민족민주운동연합회
제주민족민주운동협의회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회

광주·전남민주연합회

광주·전남민주연합회

근 고 김기설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조



■ 약 력 ■

- 1965년 경기도 파주 출생
- 영장국고, 광안중학교 졸업
- 1982년 인천 수도기계공고 입학
- 1년 중퇴
- 1984년 대입검시 합격
- 1985 - 1988년 군 복무(육군포병)
- 1988년 8월부터 「성남민주화운동청년연합」에서 활동
- 1989년 「성남노동자의 집」에서 상담간사로 활동
- 1990년 성남 제2공단 조광피역에서 노동운동
- 1990년 11월부터 전민련 사회국 사회부장으로 활동

● 상 황 ●

91년 5월 8일 오전 8시 서강대학교 본관옥상(5층건물)에서 분신! 당시 서강대 학생회실에 있었던 학생들에 의하면 "폭력 살인만행 노태우정권 타도하자!"라는 구호소리가 들려 뛰어나가보니 이미 분신후 바닥에 떨어져있는 상태였고 학생들이 급히 옷을 벗어 불을 끄고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겼으나 곧 운명하심(오전 9시경).

● 대 책 ●

전민련, 민청련 등 고인이 활동하던 단체의 관계자들이 모여 '고 김기설 동지 분신항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활동을 시작하였음. (대책위원장 : 전민련상임의장 신창균, 집행위원장 : 전민련인권위원장 서준식)

고 김기설 동지 분신항거 대책위원회

참일꾼 고 김기설 동지의 스물여섯해

☐ 중학교때부터 어릴곳이 느끼기 시작한 사회의 모순
 등학생들 기억속의 김기설 동지는 확실한 성격, 원만한 친구관계를 가진 모범생으로 남아있다. 어머니를 4살 때 여의었지만 새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따르며 그늘 없는 청소년기를 보냈다. 그러나 친구들은 문득문득 그와의 대화속에서 사회의 모순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의 시각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고등학교를 스스로 그만둔 뒤 대학입시를 준비하던 중 동지는 군대에 입대한다.

☐ 이 땅의 참된 일꾼이 되기 위해...
 88년 9월 3일 성남 민청련 창립대회에 나붙은 김근태 씨 강연 포스터를 보고 그곳에 참석, 바로 그날 민청련 회원이 되었다. 89년 성남 노동자의 집 상담간사로 들어가면서 그는 새롭게 이땅의 노동현실에 시선을 돌리게 된다. 90년 그는 조광피역에 입사. 항상 쾌활하고 다정다감한 성격, 성실하고 힘있는 활동으로 모범적이던, 그래서 그는 동료들간에 인기있고 신뢰받던 동지였다. 외아들이라 장가를 일찍 가야 한다며 여자친구 소개해 달라고 억살을 떨던 모습, 태어나서 부모님께 호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눈물이 고이던 그때의 그를 기억하며 동지들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 굶은 일을 마다하지 않던 김기설 동지
 90년 11월 부터 동지는 전민련에서 일하게 된다. 굶은 일, 드러나지 않는 일을 도맡아 했던 동지는 속속 등우전문대 사건이 터지자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달려가 외롭게 투쟁하던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노동자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신뢰를 갖고 있던 동지는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곁에서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며 헌신적으로 그 일에 뛰어들어 원진레이온 사태가 사회정화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원진 피해노동자들은 분신하기 하루전인 7일 노조를 방문하여 걱정을 함께하던 김기설 동지를 떠올리며 갑자기 접한 비보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고개를 떨구었다.

고 김기설 동지가 남긴 유언

나손하게 변혁운동의 도화선이 되자함이 아닙니다.
 역사의 이정표가 되자함은 리유,이 아닙니다.
 아눔당리 맑은 햇살리는 다스기 슬르기 아즈게 살아간은
 이땅의 비늘은 위해 부뜻은 레야 회까하는 리비축이 일은
 깃줄이깁지오. 노태우 정권은 되직해야 합니다.
 비각린은 해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슬종나 아눔미은
 안겨하는 생김으로 일생나도 지음이 정권도 꼭 타도 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우리에게 고통과 아눔은 안겨주지 마자야. 합니다.
 이세 우리들은 모두 해내가 되어 리항요려은 노태우 정권을 없애
 정면전을 선로하리 민중항쟁 재취를 취하리
 생김은 위해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 길 기 설 —

차례

추모시
고 김기설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제 1장 사건의 진실

1. 유서대필 공방과 여론조작	-----	6
2. 유서대필 조작사건 일지	-----	21
3. 김기설열사 분신 전후의 상황	-----	25
4. 김기설동지 분신항거의 전후 정황	-----	35

제 2장 진실과 날조의 공방

1. 「죽음 조종하는 배후 있다」	-----	42
2. 분신을 선동하는 배후세력이 있다니요!!	-----	43
3. 「결백 밝히려 출두합니다」	-----	45
4. 「아들 누명 억울... 진실 밝혀질 것」	-----	46
5. 유서대필 조작사건 공소장	-----	47
6. 유서대필 조작사건 수사발표문	-----	49
7. 어처구니 없는 검찰 「대필」 수사	-----	52
8. 전대미문의 유서대필 날조조작	-----	53

제 3장 정의와 진실의 대장정

1. 유서대필 조작사건 1심 공판 일지	-----	68
2. 유서대필 조작사건 검찰 논고문	-----	90
3. 변론요지서	-----	92
4. 강기훈 최후 진술서	-----	146
(자료) 고 김기설 열사 유서 감정서	-----	157

제 4장 부 록

1. 시국 사건과 검찰 수사	-----	166
2. 드레퓌스 사건	-----	187

제 1장 사건의 진실

1. 유서대필 공방과 여론조작
2. 유서대필 조작사건 일지
3. 김기설열사 분신 전후의 상황
4. 김기설동지 분신항거의 전후 정황

유서대필 공방과 여론조작

1.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의 배경

1894년 10월, 프랑스의 한 장교가 적국인 독일을 위해 스파이 임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유죄의 근거로는 독일대사관에 보낸 편지의 필적이 그의 것과 일치한다는 감정보고였다.

이 장교는 자신은 결백하다며 부인하지만 끝내 죄인으로 섬에 유배되어 유형수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후에 그가 무죄라는 것이 밝혀지고, 또한 한 양심있는 작가의 끈질긴 구명운동으로 6년만에 대통령에 의해 특별사면된다. 그후 12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그는 법정에서 다시 무죄판결을 받게 된다. 이것이 그 유명한 드레퓌스 사건이다.

이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는 단지 그가 잘못된 판결로 인해 형을 살고 다시 무죄가 되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프랑스 사회가 가지고 있던 구조에서 발생된 것이었다는 데 있다.

당시 프랑스 내부에 존재했던 뿌리깊은 반유태인사상이 재판과는 관계 없이 처음부터 유태인이라는 사실로 드레퓌스를 단죄한 것이며 그 예정된 단죄가 여론조작과 재판을 유도한 것이었다. 여러 반유태주의 신문 잡지는 언론으로서의 본연의 역할과 양심을 저버리고 비양심적인 언론의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결국 유태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범죄자가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된 것이다.

요즘 우리는 이른바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을 접하고 있다.

환한 대낮에 폭력경찰인 백골단에 의해 강경대 씨가 쇠파이프로 맞아 타살된 이후, 박승희 씨를 비롯한 젊은이들이 현정권의 폭력성과 부패성에 항거, 연이어 분신하는 사태가 이어졌다. 대중들의 분노는 투쟁의 열기로 고양되어 계속되는 전국적 집회로 이어져왔다. 이러한 급격한 정세의 변화는 현정권을 위기에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이러한 정세가 전개되어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의 분신으로 이어진 지난 5월 8일 이후, 검찰은 그동안의 분신사건들이 배후조정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더욱이 이러한 검찰의 발표는, 그 터무니없는 증상에 분노한 한 젊은이(윤용하 열사)를 또 다른 분신의 길로 이끌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분신배후 운운의 주장이 구체적인 물증 부족으로 허구임이 폭로되자 검찰은 급기야 김기설 씨의 유서가 다른 사람에 의해 대필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도덕적 타락을 민족민주운동으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 즉 내부부의 부속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내린 필적감정과 자의적 해석에 근거하여 전민련 총무부장인 강기훈 씨에게 그 혐의를 두고 5월 18일부터 본격적인 여론조작에 착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유서대필 사건 조작은 단지 한 개인이 유서를 대필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이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고, 민족민주운동권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주기 위해 한판 승부에 나선 것이다. 따라서 양심과 비양심, 즉 민족민주운동과 국가권력의 전면전인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검찰의 여론조작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와 문제점을 경과과정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자의인가 타의인가?” “자필인가 대필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1) 검찰의 1차 사건 조작 기도

5월 8일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가 서강대 본관 옥상에서 “노정권 퇴진”과 “민자당 해체”를 외치며 분신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검찰은 "최근 분신자살사건이 배후세력에 의해 조종되고 있다는 확증을 잡지는 못하고 있지만 일련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유사점으로 미루어 단순한 별개의 우발적 사건으로 보기에는 의문점이 많다"고 발표하였다.

검찰은 이들 사건이 지난달 29일 전남대 박승희양 분신 이후 2-3일 간격으로 전남·경북·경기·서울 등에서 고루 발생하여 전국적인 시위 분위기를 유도하는 인상이 짙고, 자살자의 신분이 대학생·노동·재야운동권으로 다양해 운동권의 결속을 꾀한 흔적이 있으며, 분신 20-30분 후 현장사진이 찍혀 배포되고, 분신현장에 시너통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극단적 투쟁방식을 통해 정권타도 분위기를 고조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꾸민 흔적이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김기설 씨의 분신은 조직적이고 치밀한 배후세력이 자살을 도왔을 가능성이 크라며 분신배후를 수사하겠다고 나섰다.

이러한 검찰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배후세력'의 근거로는 △육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폐쇄되어 있는데 혼자서 어떻게 올라갈 수 있었겠는가와 △몇명의 청년이 함께 있는 것을 본 어떤 목격자의 진술 △분신에 사용한 라이터나 성냥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다.

이에 대책위는 검찰이 죽음으로써 폭력에 항거한 젊은이의 뜻을 호도, 정권퇴진운동 열기를 냉각시키려는 기만적 술책이라며 검찰측이 제시한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2-3인의 청년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본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검찰의 발표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서강대 학생들의 진술과 목격자라는 윤모교수의 진술을 검찰이 자의적으로 해석, 왜곡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화물질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유품품 중 라이터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는 사실에 의해 검찰의 발표가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한 일언반구의 해명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결국 검찰은 있지도 않은 배후세력을 조작함으로써 정국의 흐름을 바꾸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김기설 씨 분신 후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당일 오전에 분신배후 수사발표가 있었고, 더욱이 그 전날 청와대에서 고위당정 회의를 갖고 그 자리에서 이러한 방침이 마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검찰의 의도된 여론조작의 행태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있지도 않은 사실들을 만들어 언론에 유포함으로써 사건을 왜곡,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검찰의 여론조작에 일부 알려진 지식인들이 동조하여 자신들의 기회주의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사건 당일 박흥 서강대 총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세력'이 있다" "우리는 이 세력의 실상을 반드시 폭로해야 한다"는 얼토당토 않은 말을 해 검찰의 백만대군(?) 역할을 하기도 했다."

검찰측의 근거없는 배후세력 운운은 또 한명의 젊은이의 죽음을 몰고 왔다. 10일 오후 전남대에서 윤훈 씨가 "누가 분신을 배후조종한단 말인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그 누가 버리라고 한단 말인가" "노태우는 국민앞에 사과하고 퇴진하라"는 등의 유서를 남기고 분신, 죽음으로 항변한 것이다. 이후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는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국민들의 투쟁열기 속으로 묻혀 버렸다. 그러나 검찰의 조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2) 검찰의 2차 조작 기도 - 유서 필적 공방

① 사건의 개요

5월 18일 검찰은 돌연히 '김기설 씨 유서의 필체가 본인 것이 아니며 전민련 모 간부의 필체와 같다'고 발표, 이어 다음날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 씨를 유서대필 용의자로 지목, 소환조사키로 하는가하면 이에 불응하면

1) 박흥 총장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의 '김기설 씨 분신사건 진상조사위원회'와의 인터뷰에서 제3자가 유서를 갖다 놓았을 가능성에 대해 자신이 직접 김기설 씨 상의 호주머니에 유서가 꽂혀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며 조작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고, "분신배후에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자신은 '배후세력' 운운한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라는 표현은 인간들 마음속의 선과 악에 대한 종교적 표현에 불과한 데, 언론이 완전히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다며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발뺌하고 있다(『새누리신문』 6월 8일 인터뷰 기사).

자살방조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 주장의 근거로서, 검찰은 그동안 김기설 씨의 유서가 자필이 아닌 것 같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돼 필적감정에 중점을 두었다며 김기설 씨가 85년 누나에게 보낸 「아기기르는법」 책표지 안에 적힌 필적을 제시, 유서의 필적과 다르고, 강기훈 씨가 85년 검찰에서 작성했던 피의자 진술조서의 필적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유서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판정이 나왔다고 밝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5월 20일 검찰이 공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 결과통보서는 검찰이 감정을 의뢰한 다섯 가지의 필적 중 유서와 김기설 씨가 작성한 것으로 전민련에서 제출한 업무일지의 필적은 동일하다고 판정됐고, 지난 85년 김기설 씨가 누나에게 책을 선물하면서 곁장에 쓴 글씨와 89년 김기설 씨의 무인이 찍힌 주민등록증분실신고서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앞의 두 가지와 뒤의 두 가지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하고 정서 속필 또는 필기구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없어 이동(異同)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필적감정은 같은 것인지에 대해서만 판정할 뿐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정하지 않는 게 관례”라며 “같은 것인지 판정할 수 없다”는 말은 곧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하였다.

검찰은 이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김기설 씨의 유서와 전민련 업무일지는 김기설 씨의 자필이 아니라고 판단, 전민련 총무부장인 강기훈 씨가 85년 경찰에서 쓴 자술서를 감정한 결과 유서 및 전민련 업무일지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판정이 나왔고, 뿐만 아니라 김기설 씨의 여자친구인 홍성은 씨가 김기설 씨로부터 받았다고 제출한 메모도 강기훈 씨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또한 검찰은 김기설 씨 분신 직후 강기훈 씨의 주도로 김기설의 주변인물 몇명이 모여 검찰수사에 대비한 대책회의를 가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유서대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전민련 업무일지와 홍성은 씨의 메모까지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김기설 씨의 유서가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검찰측의 발표는 전혀 사실과 다른 악의에 찬 날조로서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로 궁지에 몰린 현정권의 치졸한 조작극이라며, 김기설 씨가 자

살직전까지 사용했던 수첩과 서류철 등에 적혀진 김기설 씨의 필체를 공개하고 이 필체가 유서의 필체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한 강기훈 씨가 지난 87년 4월에 옥중에서 여동생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하고, 이 편지의 필체는 유서의 필체와 전혀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

강기훈 씨는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의 주장은 민주운동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악의에 찬 왜곡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그러나 공개되고 안정된 장소라면 언제든지 공개필적감정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② 필적 검사의 문제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대한 검찰과 전민련측의 주장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 보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에서 그동안 몇 차례 감정한 감정자료로는 ① 김기설 씨의 유서 ② 전민련에서 제출한 김기설 씨가 작성한 업무일지 ③ 85년 김기설 씨가 누나에게 선물한 「아기기르는 법」이란 책 곁장에 쓴 글씨 ④ 89년 김기설 씨 무인이 찍힌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⑤ 강기훈 씨가 85년 민정당가탁동연수원 점거농성사건으로 구속돼 경찰에서 쓴 자술서 ⑥ 홍성은 씨가 김기설 씨로부터 받았다는 메모 등 이다.

국과수의 감정결과 보고는 ③과 ④의 필적이 동일하고, ①과 ②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판정했고, 또한 ⑤, ⑥의 필적이 ①과 동일하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①, ②의 필적과 ③, ④의 필적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하고 정서, 속필 또는 필기구에 따른 변화를 알 수 없어 이동(異同)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검찰측은 자의적으로 해석해 필적감정은 같은 것인지에 대해서만 판정할 뿐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는 판정하지 않는 게 관례라며 “같은 것인지 판정할 수 없다”는 말은 곧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하면서 ①, ②, ⑤, ⑥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국과수의 감정결과는 곧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필했다는 증거라고 단정하고 있다.

더욱이 ②, ⑥은 유서대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에 덧붙여 유서내용 중 김기설 씨를 어렸을 때부터 키우다시피한 누나에 대해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유서대필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전민련측의 주장은 설령 김기설 씨의 분신을 공모했다 하더라도 유서는 본인 스스로 쓰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고 반박하고 있고, 필적감정에 대해서는 김기설 씨가 또박또박 정서된 필체와 빠르게 쓴 속필체의 두 가지 필체를 가지고 있으며, ①은 속필체로 쓴 것이고 ③은 정자체로 쓴 것으로써 이러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전민련은 그동안 김기설 씨가 활동하면서 남겼던 속필체로 쓴 업무일지, 수첩, 승의여전 메모, 터사랑청년회의 방명록 등 여러 가지 자료와 정자체인 90년 11월 김기설 씨가 작성한 자필이력서, 성남민청련에서 활동할 당시 작성한 상황일지와 조직기구표를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검찰의 강기훈 씨의 유서대필 주장과 관련해서는 김기설 씨의 필체와 강기훈 씨의 필체가 육안으로도 전혀 다르다는 것이 구별된다며 반증자료로 87년 강기훈 씨가 마산교도소에 복역당시 동생에게 보냈던 육중편지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마산교도소 검인과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다. 그러나 검찰측은 이 육중편지를 포함한 모든 자료에 대해 조작된 것이라며 증거채택을 거부하고 있다. 강기훈 씨의 필적 중 증거자료로 채택된 것은 85년의 경찰 자술서와 이후에 보강된 증거자료로 강기훈 씨가 대학 재학당시 썼던 화학노트뿐이다.

이상의 양측 주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검찰의 수사태도에 대해 몇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는 검찰의 증거채택에 대한 편파성이다. 검찰은 이미 강기훈 씨의 집을 가택수색해 강기훈 씨의 많은 필적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85년 자술서와 대학재학시절 쓰던 대부분이 기호로 표기된 화학노트만을 증거로 채택하고 있고, 그 외의 필적 특히 최근 필적은 전혀 채택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정확한 필적감정을 위해서는 많은 자료들을 감정해 객관적인 판정결과를 내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검찰은 이러한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국과수의 감정보고에 대한 검찰의 자의적 해석이다. 검찰은 "같은 것인지 판정할 수 없다"는 곧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하나 실제 감정결과는 "같다" "다르다" "판정불능"의 세 가지로 나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판정할 수 없다"를 "다르다"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검찰의 태도는 사건에 대한 객관성을 전혀 상실한 채 다분히 목적의식적으로

이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에 대한 '정확성'과 '공정성'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여러 가지의 문제 중 특히 필적감정을 1백% 신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감정작업 자체가 '사람'에 의해 이루어질 뿐 아니라 '확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과수의 필적 감정은 필적들을 몇십배로 확대한 뒤 '육안'으로 글씨의 특성 등을 관찰 비교하는 것이다. 결국 감정결과는 전적으로 '개인의 경험과 판단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게다가 보통 필적감정을 할 때는 2명 이상이 참여해 감정을 실시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 사건에는 이러한 관례를 어기고 문서분석실장 혼자서 단독으로 감정을 실시했다 한다. 과연 이러한 감정결과가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되었는지, 감정결과에 대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이번 강기훈 씨 자술서를 감정한 국과수의 문서분석실장의 경우도 80년 2월에 허위감정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 구속사건이 일어난 이후 국과수는 말쑥의 소지가 많은 민사소송상의 감정은 일절 하지 않고 있고, 민사소송의 필적감정 사건이 발생할 경우는 법원이 일반 사설 감정소에 촉탁하여 실시한다고 한다. 많은 정치적 함의를 담고 있는 시국사건인 경우는 더욱 문제가 될 것이다.

국과수는 내무부의 산하기관으로서 시국과 관련된 사건들을 은폐, 조작하는 것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 87년 박종철 군이 안기부 고문에 의해 살해되었을 때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은 국과수의 부검의 황적준 박사를 회

- 2) 한겨레신문은 독자적으로 유서 진위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사설 감정기관인 중앙인영필적감정원에 김기설 씨의 유서와 수첩 사본, 그리고 강기훈 씨의 87년 마산교도소 수감시절 집으로 보낸 편지사본 등 3종류의 문건을 감정의뢰했다. 그러나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한때 감정이 중단되는 사태를 낳기도 했다. 감정결과는 김기설 씨의 유서와 전민련에서 제출한 수첩의 필적이 동일하고 강기훈 씨의 편지 필적은 동일필적인지 여부를 논란할 수 없다고 나왔다. 이 사설 감정기관은 일반적으로 민사재판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증거물로 제출될 수 있을 정도의 공신력을 지니고 있다.

유, 강압하여 부검감정서를 두 차례나 고쳐 쓰게 해 사건을 은폐하려다 구속되기도 했다. 또한 이철규 군 사인을 둘러싸고 국과수는 도저히 단순 익사로 보기 어려운 사체의 상태와 많은 정황들 그리고 선행사인을 배제시켜 놓고, 장기내 플랑크톤 발견만을 가지고 익사라고 결론을 내려 여전히 의혹을 남겨놓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의 경험과 이번 사건의 진행과정 속에서 국과수의 필적감정이 충분히 조작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검찰 발표의 그밖의 문제점

필적 감정에 따른 유서의 진위 여부와 함께 이 사건에서 중요한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것이 홍성은 씨가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진술내용을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하고 있다. 홍성은 씨가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내용으로는 △강기훈 씨가 유서작성자라는 사실 △김기설 씨의 분신이 독자적인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 △일부 전민련 관계자가 이번 사건에 관련된 증거물을 숨기려 했다는 사실 등이라는 것이다. 그것의 근거로 홍성은 씨의 '진술' 내용 중에 강기훈 씨가 김기설 씨 분신 이후 종로 모카페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그 자리에서 홍성은 씨가 김기설 씨로부터 선물받은 수첩의 맨 뒷장에 「김기설」이라는 이름과 전민련 전화번호 2개를 써넣었고, "검찰의 조사를 받게되면 김기설 씨가 쓴 것이라고 진술하라"고 시켰다는 '진술'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김기설 씨 분신 하루 전인 7일 오후 "내가 8일 죽기로 결정됐다"며 수첩에 적힌 몇몇을 가리키며 "내가 죽으면 그곳에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수첩과 관련해서는 홍성은 씨가 김기설 씨로부터 받은 수첩을 전민련에 가져갔으며 이후 검찰출두를 앞두고 전민련 간부에게 수첩을 돌려달라고 하자 "검찰에서 조사를 받더라도 수첩은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러한 홍성은 씨의 '진술'은 필적을 조작하려 한 것을 뒷받침하고 있고 결국 강기훈 씨가 유서 대필자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민련에서 제출한 김기설 씨의 수첩은 홍성은 씨 등의 '진술'을 통해 검찰이 파악한 원래 수첩의 내용과 다른 점이 많아 조작됐을 개연성이 크다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수첩보관 관여자 3명을 범

인은닉 등 증거인멸 혐의로 금명간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연행할 방침이고, 또한 홍성은 씨의 '진술'과 전민련에서 제출한 김기설 씨의 수첩이 강기훈 씨가 유서대필사건을 은폐하려 한 결정적 증거라고 보고 법원에 증거보전을 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전민련측의 입장은 홍성은 씨의 이러한 진술들은 검찰의 불법, 강압적인 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소위 「대책회의」와 관련해서는 5월 12일 장례일에 장지인 마석에 다녀온 후 오후 8시경 종로 5가 소재 '도이치 호프'에서 홍성은 등 후배 4명과 술을 마시며 일상적인 대화와 농담을 주고받고 헤어졌을 뿐 홍성은 씨 수첩에 글씨를 써준 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두번째 만남은 홍성은으로부터 만나고 싶다는 전화가 와 만났는데, 홍성은 씨의 검찰이 자신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 같다는 말에 이미 "모든 사실이 밝혀졌는데 조사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며 조사를 받더라도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밝히면 될 것이고 분위기가 위압적이라도 말을 반복하지 않고 의연히 대처하라고만 했을 뿐, 유서대필과 관련된 은폐모의를 했다는 검찰의 발표는 전혀 터무니없는 왜곡날조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민련은 검찰조사 이후 행방이 전혀 알려지고 있지 않은 홍성은 씨가 검찰에 의해 연금 내지 격리된 상태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보고 지금 당장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야 하며, 그런 상태에서 공개적인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검찰의 불법, 강압수사로 인해 평범한 한 여성의 정신과 육신에 그 어떤 훼손이 있다면, 검찰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홍성은 씨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98시간 동안 검찰에서 불법적인 수사를 받았고 그 이후 검찰에 의해 행방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검찰에서 주장하는 홍성은 씨의 '진술'은 홍성은 씨가 공개적으로 나와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기 전까지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검찰이 조작한 '진술'로밖에 볼 수 없다.

이밖에도 검찰의 유서대필 발표에 많은 논리적 허점과 김기설 씨가 직접 유서를 작성했다는 증거들이 나오자 검찰은 또다시 수첩이 조작되었다는

등 민민운의 도덕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새로운 쟁점을 발표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전민련으로부터 받은 수첩이 다른 사람의 수첩이거나 아니면 상당부분 침해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발표했다. 그것의 근거로는 수첩의 몇 군데가 찢어져 있고 수사과정에서 홍성은 씨의 '진술'에서 확인된 김기설 씨의 기록내용이 빠져있는 등 여러가지 점에서 원래의 수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의 수첩 감정결과는 수첩이 유서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수첩은 원본과 다른 것이 많고 유서는 김기설 씨의 자필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이 수첩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검찰은 김기설 씨의 필적을 요구했을 때 가장 확실한 김기설 씨의 필적인 수첩은 은닉한 채 업무일지를 제출했는지와 국과수의 감정결과 전민련이 제출한 문제의 수첩이 찢겨진 3장과 절지선이 일치하지 않고 겹치고, 필압흔적이 없으며, 1장이 분실된 것과 이 수첩의 필적이 강기훈 씨의 필적과 동일한 것 같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민련은 검찰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기자회견을 갖고 "분명히 김기설 씨의 소유로 메모 역시 김기설 씨가 작성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수첩에 대해 일부 훼손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고의적으로 중요내용을 훼손한 적은 없으며, "검찰에 제출한 김기설 씨의 수첩에는 김기설 씨만이 알 수 있는 사항이 25가지나 기록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동민·중민·민직은 각각 동서울·중서울민주화운동청년연합과 민주화운동적정청년연합의 약자이며 김기설 씨가 민청련에 관여했던 반면 강기훈 씨는 민청련과는 무관하다는 점 △'주거권 쟁취 결의대회' '지구의날 시민걷기대회' 등의 스케줄은 김기설 씨가 승의여전 이보영 씨가 보는 앞에서 적어 건네준 메모와 내용·필적이 일치한다는 점 △5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순차적으로 잡혀 있는 방송통신대학 '소리새벽' 모임 회원인 지혜·기환·윤희·국영과의 약속은 김기설 씨 개인 스케줄이라는 점 △한남대학교 신문사 전화번호는 이 대학 신문에 김기설 씨가 원고를 실으며 관계를 맺을 때 적은 것이라는 점 등이다.

검찰은 국과수의 감정결과 이전에 이미 수첩은 조작되었을 것이라고 예

단했고 국과수는 검찰의 그러한 예단을 뒷받침했다. 검찰은 전민련이 김기설 씨 분신자살 경위 및 유서작성자에 대한 검찰수사에 혼선을 일으키기 위해 사후조작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나 오히려 검찰이 짜맞추기식의 조작을 하고 있지 않는가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일으킨다.

만약 검찰의 말처럼 수첩이 강기훈 씨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면 뒷부분의 전화번호 1장과 메모란 몇장을 찢어냈다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고, 국과수의 감정결과도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실제로 강기훈 씨가 사후에 수첩을 검찰 제출용으로 조작했다면, 몇장을 찢어 끊어부스럼을 만들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수첩이 원본과 다르다는 근거를 단지 홍성은 씨의 확인되지 않는 '진술'과 국과수의 감정결과 강기훈 씨의 필적과 "동일한 것 같다"는 추측을 근거로 하고 있을 뿐인데 검찰은 수첩에 나타나 있는 김기설 씨와 관련한 여러 정황들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실령 홍성은 씨가 그런 말을 했다손치더라도 홍성은 씨가 김기설 씨의 수첩을 가지고 있던 것은 잠깐 동안이었다. 그런데 수첩에 기재된 사항들을 여러 날이 흘러서도 그렇게 자세히 파악, 기억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김기설 씨의 분신이전 행적에 대해서 검찰은 5월 6일 하오 3시부터 5월 7일 하오 7시까지의 김기설 씨 행적이 불분명하다며 마치 이때 강기훈 씨나 그외의 사람과 접촉이 있었던 것 같은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으나 강기훈 씨가 김기설 씨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4일 하오 8시 전민련 사무실에서 잠깐 얼굴을 대면한 것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분신 전날인 5월 7일에는 10시에 출근해 하루종일 전민련 사무실에서 일을 했고, 저녁시간에는 이영미 씨와 만나 아버지날 선물을 함께 산뒤 헤어져 집에 들어가 잠을 잔것이 확인 돼 김기설 씨의 분신 이전 행적이 밝혀지지 않은 시간대인 5월 7일 오후 3-7시와 새벽 5-8시 사이의 알리바이가 분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5월 26일 강기훈 씨에 대한 사전영장을 발부했다. "강기훈 씨가 지난 5월초 '내가 죽은 뒤 전민련의 선택형이나 서준식 인권위원장에게 장례 등 모든 문제를 맡겨 처리하게 해달라'는 등의 내용을 유서에 써넣어 김기설 씨의 자살결의를 강화시켜 준 혐의"라는 이해할 수 없는 영장의

내용은 검찰이 이후 이 사건을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동안 나름대로 조사를 벌여온 가톨릭과 기독교계가 김기설 씨 유서대필 사건에 적극적인 대응을 벌이고 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농성장에 직접 방문해 “강기훈 씨의 결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에서 지난 6월 1일 구성된 ‘김기설 씨 분신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김기설 씨의 유서 대필여부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유서 대필자로 지목된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실증을 갖게 됐다”고 밝혔고 “만약 강기훈 씨가 무고하게 자살방조 혐의를 받고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라면 이는 엄청난 인권침해”라며 검찰의 수사태도가 자의적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3.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고 역사는 반드시 단죄할 것이다.”

검찰이 그동안 강기훈 씨를 유서대필 용의자로 지목, 수사를 벌여온 것은 홍성은 씨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국과수에서의 필적감정결과를 근거로 해서이다. 그러나 위의 두 가지가 갖는 문제점을 우리는 이미 앞에서 짚었다.

정권의 본질이 폭로될 때마다 그것을 은폐시키기 위해 여론조작을 통한 시국사건들을 조작해냈던 검찰의 행태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86년의 부천 성고문 사건에서는 “좌경세력이 성까지도 혁명도구화한다”며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려 했고,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상식밖의 주장으로 사건을 은폐시키려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강경대 씨가 경찰에 의해 대낮에 최파이프로 맞아 죽고 이를 계기로 그동안 쌓였던 대중들의 분노가 일시에 폭발하자 이를 희석시키기 위해 허무맹랑한 배후세력이 있다고 운운하기도 하고 그것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자 이제는 유서가 대필되었다는 것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흐트려 놓으려 하고 있다.

그동안의 검찰의 태도는 미리 짜놓은 각본에 따라 끼어맞추기식 수사를

진행시켜 왔다. 이번 유서대필 사건에 의해 현정권이 얻는 것은 무엇이고 그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유서대필 문제가 여론에 의해 크게 부각된 5월 18일은 경찰의 저지로 무산되었던 강경대 씨의 장례식을 다시 치르기로 한 날이었고 수첩이 조작되었다고 발표한 날은 김귀정 씨가 경찰의 폭력적 진압에 의해 사망한 날이었다.

장례식 예정일이었던 5월 14일 경찰은 무차별한 최루탄 난사로 장례행렬을 막아 결국 연세대로 다시 돌아가게 했다. 그러나 이날 전국에서 30만 명의 학생 시민들이 노경진 퇴진과 공안통치 종식을 요구하며 6공화국 들어 최대의 시위를 벌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정권은 이러한 국민들의 끓어오르는 열기를 유서대필이라는 여론조작으로 사태의 본질을 왜곡, 이를 통해 자신의 치부를 감추고 위기를 모면하려 한 것이었다.

검찰은 ‘잘되면 천운이고 안되면 밀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자신들의 폭력적인 본질은 은폐시키고 국민들의 끓어오르는 민주화요구를 희석시키기 위해 유서대필이라는 희대의 사기극을 조작해낸 것이다. 즉 부정, 부패, 폭력살인 등 현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을 냉각시키기 위해 현정권은 정국의 초점을 유서대필 조작사건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려는 여론공작을 자행한 것이다. 결국 현정권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자신을 불사른 숭고한 죽음까지 이용해 자신들의 정권의 위기와 대중의 분노를 막기 위해 몸부림치는 철저히 부패하고 부도덕한 정권인 것이다. 즉 분신의 배후는 다름아닌 현정권인 것이다.

현정권은 이 사건을 조작하여 범민주세력의 진실성에 대한 대대적인 기만전선을 강화하고 그후 탄압의 명분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이 언론의 보도태도와 일부 물지각한 지식인들이다. 그들은 최소한 가져야 할 객관성과 중립성마저 상실한 채 오로지 검찰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하는, 더 나아가 보다 앞서 예단하고 확대보도하여 검찰의 그것보다 먼저 독자에게 객관적인 상황인식과 판단을 흐리게 하는, 즉 검찰이 유도하는 여론재판에 도구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 충견 노릇을 훌륭하게 해내었다.

그러나 역사의 진실은 오로지 하나일 수밖에 없고, 그것은 반드시 승리

한다.

“나는 궁극적 승리에 대해 조금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욱 강력한 신념으로 거듭 말합니다. 진실이 행군하고 있으며 아무도 그 길을 막을 수 없음을! 진실이 지하에 묻히면 자라납니다. 그리고 무서운 폭발력을 축적합니다. 이것이 폭발하는 날에는 세상 모든 것을 휩쓸어버릴 것입니다”라는 드레퓌스 사건에서의 에밀 졸라의 말을 다시 한번 새겨보지 않으면 안된다. □



유서대필 조작사건 일지

- 5월 8일 * 8시7분경 김기설동지 본신항거
- * 1시경 '김기설열사 본신항거 대책위' 기자회견(연대 학생회관)
- 5월 9일 * 검찰 사체 검안 실시 (영안실)
- * 임근재(전청대협 간사)검찰조사(연대)
- * 전민련 사회국 업무일지 제출(연대)
- 5월 10일 * 김기설 열사 추모대회(명동성당 7시)
- 5월 12일 * 김기설열사 장례식
- 5월 13일 * 오후 10시 홍성운(김기설 여자친구)불법연행, 압수수색 - 서울지검 강력부 (15일 밤에 잠깐 집에 들렀다가 다시 연행, 17일까지 100여 시간 불법 수사)
- 5월 14일 * 오후 11시 김문정(강기훈씨 학교후배)강제연행
- 5월 15일 * 오전 9시 김문정씨 재연행시도, 거부 탈출
- * 검찰의뢰로 국과수 1차 감정(유서와 김기설 조카 생일카드 필적)
- 5월 16일 * 오전 8시 30분 이영미(강기훈씨 대학후배)서울지검 강력부에 강제연행.
- * 12시경 강력부 검사 2인과 수사관4-5인, 강기훈씨 집 압수수색(3시간)
- 5월 17일 * 국과수 2차 감정(강기훈씨의 5년전 경찰진술서와 유서 필적)
- 5월 18일 * 석간 신문에 유서대필 문제 등장 시작
- 5월 19일 * 오전 9시 30분 전민련 기자회견 -강기훈씨 결백하며 공개수사에 응하겠다는 요지
- 5월 20일 * 오전 명동에서 제2차 기자회견, 필적공개(수첩, 서류봉투, 옥중편지)
- * 검찰 필적감정서 공개, 수첩 전달 요구
- * 전민련 김기설동지 수첩 전달(검찰청)
- 5월 21일 * 전민련 3차 기자회견 (승의여전 메모 공개)

- 5월 22일 * 전민련 4차 기자회견 (터사랑학우회 방명록, 이력서 공개)
- * 전민련 오후6시 명동성당에서 제1차 설명회 개최
- * 전민련 전교조 원주지회 방명록 공개
- * 검찰 김씨 수첩이 조작 됐다고 발표 국과수에 감정의뢰 한다고 발표
- * 한겨레신문 감정의뢰 필적 압수수색(유서사본, 수첩사본, 고도소 편지사본)
- 5월 23일 * 전민련 제5차 기자회견 (강기훈씨의 민중당보고서 공개)
- * KNCC인권위 공개수사 촉구서 서울지검에 발송
- * 검찰 전민련관계자 8명에 대해 증거인멸및 범인은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발부예정 발표
- 5월 24일 * 전민련 김기설동지 필적 공개(성남민청련 상황일지, 업무일지 공개)
- 5월 25일 * 국과수 유서와 수첩필적 동일 판정, 수첩 조작 판정(절취선, 필압)
- * 검찰 강기훈씨 대필 최종 결론
- 5월 26일 * 검찰 사전구속영장 신청 발부 -자살방조혐의
- 5월 27일 * 김기설씨 유서 내용 일부 강기훈씨 직접 써보임
- * 전민련 김기설씨 수첩임을 입증하는 기자회견 -자세한 증거와 설명
- 5월 28일 * 강기훈씨 영장 집행 시도 -서울지검 수사관 9명 명동성당으로 음
- 5월 29일 * 10시 신상규검사 명동성당 측에 강기훈씨 연행 협조요청
- * 오후3시 강기훈씨 명동성당측에 검찰영장집행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
- * 국과수 필적 감정 결과 통보(1. 수첩=유서=강기훈 자술서(85년)=84년 강씨 화학노트 의 필적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2. 수첩 중 찢겨진 3장의 절취선 부분에 대한 보충감정결과 3장 모두 요철이 맞지 않고 찢겨진 부분과 남은 부분이 서로 겹친다)
- 5월 30일 * 강기훈씨와 대책회의 간부 20명 수배자 명단 배포

- 5월 31일 * 김기설씨 분신사건 진상조사위 구성, 검찰에 협조 공문발송
- 6월 7일 * 강기훈씨 김수환 추기경에 편지보냄
- 6월 9일 * 전민련 추기경에게 공문발송, 신병보호, 공식면담 요청
- * 강기훈, 서준식씨 고구청 사무처장 에게 신병보호, 제3의 장소에서의 공개수사 중재 요청
- 6월 11일 *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성명 발표
- * 경찰 명동주변 봉쇄
- 6월 12일 * 정평위 진상조사 소위에서 강기훈, 서준식씨의 설명 청취
- * 오후7시 정평위 공식입장 발표
 - 조속한 시일내 자진 출두
 - 필요시 변호인단 구성, 인권보호에 최선
- 6월 14일 * 정평위, 정구영 검찰총장 방문 -공정수사요구
- 6월 15일 * KNCC인권위, 진상조사 결과 발표
- * 서준식 위원장 20일 이후 강기훈씨 출두 적극 고려
- * 김추기경 극무총리 방문-공권력 투입 자제 요청
- * 사제단 성명발표
- 6월 18일 * 홍성은양 은신처 발견
- 6월 19일 * 10시30분 대한변협 회장, 정구영 검찰총장 방문-공정수사 통한 진상규명 요청
- 6월 22일 * 강기훈씨 24일 출두 밝혀
- * 검찰 대필 배후 수사 밝혀, 주변인물 14-5명
- 6월 24일 * 강기훈씨 검찰에 자진출두
- * 오후 이 정(강기훈 학교 후배)씨 소환 -김씨분신 이후 카페모임 내용 조사
- * 검찰 강기훈씨 묵비권 행사시 변호인 접견 불허 밝혀
- 6월 25일 * 이영미씨 강기훈씨 면회갔다가 강제 연행 -완강히 거부, 재차 연행시도, 연행 당함
- * 강기훈씨 자술서 일부 쓰기 시작(16절지 16장)
- * 승의여전 학생 강압수사 폭로
- 6월 26일 * 변호인단 성명(묵비권행사 관련 성명)
- 6월 27일 * 강기훈씨 유서대필 혐의 벗을 필적 20건 변호인단에 제

- 출 요구
- * 변호인단 강씨 면회(6인)
 - * 혁노맹 관련 수사
 - * 강기훈씨 동창 임모씨등 2인 참고인 조사
- 6월 29일 * 서준식 전민련 인권위원장 구속
- 7월 1일 * 이영미씨 대공본실(호제동) 연행
- 7월 2일 * 김씨분신관련 참고인 14명 전국 수배령
- * 검찰 이보은(범국민대책위 총무)씨 연행
 - * 강씨변호사인 이석태 변호사 참고인 출두요구(승의여전 매도 관련)
 - * 강기훈씨 변호인 2명 강기훈씨 면회
- 7월 3일 * 김병희(김기설 성남 후배)씨 검찰조사
- 7월 4일 * 이동진(전민련 사회부장) 연행
- 7월 5일 * 김현수(전민련 조직부장) 연행
- 7월 6일 * 임무영(전민련 부대변인) 연행
- 7월 8일 * 임무영씨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
- * 전민련 구속자 가족 농성 시작
 - * 서준식 인권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 7월 10일 * 강기훈동지 구속기소, 수사발표
- 7월 12일 * 최재인(전민련 편집부장)연행
- 7월 13일 * 전민련 구속자 가족 농성 정리
- 8월 3일 * 강기훈동지 보석신청 기각

**노태우 정권은 민족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모든 구속·수배자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라.**

김기설열사 분신전후의 상황

✻ 전민련 자체 조사 결과 ✻

겨우내 얼어붙은 땅을 뚫고 피어나는 새싹 때문일까. 봄은 생명과 동의어로 여겨진다. 그러나 분단된 한반도의 봄은 1991년에도 여지없이 잔인했다. 아직 채 피워보지도 못한 건강한 젊은이들의 목숨이 똑똑 끊어져 버린 4월에서 5월까지.....

강경대군이 무자비한 공권력의 쇠파이프에 살해 당한 후 민족민주운동 진영은 『고 강경대 열사 살인폭력 규탄과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이하 범국민대책회의)를 구성했다. 그러나 숨막히는 폭정에 죽음으로 항거하는 젊은이들이 잇따르면서 '범국민대책회의'는 급변하는 상황에 한숨돌릴 겨를없이 노심초사하고 있었다.

5월7일밤도 역시 그런 나날들 가운데 하나였다.

5월 7일밤 9시 40분 경 연세대 학생회관 4층에 자리잡고 있던 범국민대책회의 상황실에 한 방송통신대 여학생이 다급한 얼굴을 하고 찾아왔다. 당시 상황실은 5월 9일 제2차 국민대회 준비관계로 매우 부산스러웠다. 그 여학생의 이름은 이지혜(21세), 자신이 한국방송통신대 동아리 '소리새벽'의 회원이라고 말하며 '전민련 사회부장인 김기설씨(27세)가 분신할지도 모른다'는 당혹스러운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덧붙였다.

"5월 5일 동아리 소속 학생 6명과 김기설씨를 만나 모임을 가진 뒤 몇차에 걸쳐 술을 마시다 자신과 송국영(방통대생, 소리새벽 회원 21세), 그리고 김기설씨가 마지막으로 남게 되었다. 대학로 부근의 술집에 들어가서 술자리를 하는 동안 김기설씨는 민중이 탄압받는 이땅의 현실을 가슴아파 하며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잇다른 대학생들의 분신을 막기 위해 내가 나설 것이라는 요지의 말을 했다. 그후 종로 5가에 위치한 백제여관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이야기하며 눈물로 분신계획을 만류하였으나 김기설씨의 생각은 확고부동하였다. 다음날인 6일 오전에 여관을 나와 자신과 김기설은 광화문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후에 마포로 와 김기설씨가 증명사진을 찍겠다

고 해서 사진관에 같이 간 후, 오후 3시 경 헤어지면서 오늘(7일)오후 6시 가든호텔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이때 김기설씨는 자신의 수첩 중 전화번호 부분을 찢어 이지혜양에게 주려다가 연락할 곳이 있다며 다시 가져 갔다.)그러나 약속시간 3시간이 넘어도 나오지 않아 이렇게 달려온 것이다.”

이지혜씨의 이야기를 들은 전민련 사회부장 겸 범국민대책회의 부 대변인인 임무영(29세)씨는 이 문제를 범국민대책회의 차원이 아니라 전민련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김기설씨와 함께 자취를 하는 임근재(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기획부장, 27세)씨와 장준호(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간사, 26세)급히 찾아 김기설씨의 행방을 급히 찾도록 부탁하였다.

소식을 전해들은 임근재씨는 북가좌동에 위치한 자취방으로 급히 달려갔다. 4월 27일 강경대 타살사건 이후 거의 들어가 본 적이 없던 자취방에 들어가니 이불은 퍼져 있는 상태였고 빵봉지와 바나나 껍질등이 널려 있었다. 주위를 계속 살펴보니 16절지 크기의 종이에 ‘혁명의 도화선이 되고자 함이 아니고……’라는 뜻모를 메모가 쓰다만 채 놓여 있었다. 이것을 본 임근재씨는 진짜 사고를 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메모지를 뜯어 주머니에 넣고 기다려도 돌아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상황실로 돌아가기 위해 자취방을 나서는 데 김기설씨가 들어왔다. 11시가 거의 다 된 시간이었다.

김기설씨는 홍성은씨와 헤어져 자취방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김기설씨는 이지혜와 마포에서 헤어진 뒤인 6일 오후 4시경 연대 상황실에 들러 개인 짐을 챙긴 뒤 성남으로 향하였다. 성남 경원대를 들른 뒤 7시경 성남에 소재한 「터사랑청년회」사무실에 도착하여 성남 동료인 이호경, 김병희(중앙대4년, 김기설과 성남에서 같이 자취를 하였고, 김기설의 개인 짐이 아직도 김병희씨 자취방에 남아 있었다.) 세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분신 자살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그외 성남에서 활동을 같이 했던 몇몇 동지와 술을 마신 후, 7일 새벽 1시 경 김병희씨와 같이 잠을 잤다. 7일 오전 9시경 집을 나와 10시경 중앙대에 도착한 후 김병희씨와 헤어지고 오후 1시경 전민련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연대로 들어가는 길 이라고 전했다.(이때 사무실에 전화를 건 이유는 별다른 용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무

실에서 혹시 김기설씨의 계획을 알고 있지 않은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인 것 같다.)

그러나 김기설씨는 연대로 들어가지 않았고, 2시경 임근재씨를 만나보기 위해 신촌에 있는 「민주화직장청년연합」 사무실에 들렀다. 민직청에서 나온 3시 부터 홍성은을 신촌에서 만난 7시 30분 까지의 행적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홍성은(26세, 김기설씨의 여자친구, 강기훈 대학 후배, 의정부 모 여상 강사)씨와 임근재씨의 증언에 의하면 그 시간 동안 집에가서 유서를 쓰다가 잠을 잤던 것으로 보인다. 즉 홍성은과 7시경 신촌에서 만났을 때 잠을 자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했고, 7일 밤 임근재가 자취방에 들렀을 때 이부자리가 퍼져 있었으며, 임근재 이보은(24세, 전민련 조통위 부장, 당시 범국민대책회의 총무)과 만났을 때에 잠을 많이 잤다고 했다는 것이다.

7일 오후 7시 30분 신촌에서 홍성은을 만난 김기설씨는 홍성은양과 식사를 하면서 5.4국민대회에 대한 약간의 평가를 하고 난 뒤 홍성은양에게 분신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 것 같냐고 물었다. 이에 홍성은양은 그런 것은 약간의 패배주의적 생각인 것 같다고 하며 분신 보다는 열심히 일하고 싸우는 방법이 바람직 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김기설씨는 그렇지 않다고 반응했다. 홍성은씨는 그런 것을 왜 자꾸 묻는냐고 하자 김기설씨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반문하며 본인의 분신계획을 우회적으로 알렸다.

그후 김기설씨는 자기의 수첩을 꺼내 전화번호부를 주며 내일 아침 나에게 무슨일이 생기면 9시경 이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해달라고 부탁하며 홍성은양에게 건네주었다.

그후 두사람은 식당을 나와 이대쪽으로 걸으면서 홍성은양이 눈물로 분신을 만류하였다. 그러나 10시 30분 경 김기설씨는 확고부동한 태도로 유서를 써야하기 때문에 집으로 가야 겠다며 눈물로 만류하는 홍성은양을 뿌리치고 북가좌동의 자취방으로 향했다.

11시경 북가좌동 자취방에서 김기설을 만난 임근재는 순간 긴장하여 찾았던 만큼 매우 기뻐다.(이 때 김기설씨는 곤색양복을 입고 있었다.)그러나 즉시 마음을 가다듬고 평상시처럼 행동하며 김기설씨를 유심히 관찰했다. 방이 지저분하니 같이 방청소를 하자고 말하며 짐짓 태연을 가장하였다. 같이

방정리를 하던 김기설씨가 임근재씨에게 “오늘 만나고 싶었다. 너를 만나려고 「민주화운동직장청년연합」 사무실에 갔었다.”라고 말한 후 혹시 방바닥에 있던 메모지를 보지 못하였냐고 물었다. 임근재는 일순 당황하였으나 모른다고 대답했다.

11시가 조금 넘어 두 사람은 술을 한잔 하기로 하고 밖으로 나왔다.(김기설씨는 츄리닝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임근재씨는 김기설씨의 일거수 일투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말한마디도 그냥 넘기지 않았다. 두 사람은 동네 포장마차에서 당시 정치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경대군 타살, 원진레이온 사태, 동우전문대 사태에 관해서 이야기한 뒤 김기설씨는 죽음으로 항거하는 것의 의미를 짚어 나갔다. 임근재씨는 드디어 김기설씨의 분신 계획이 현실로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절대로 죽어서는 않된다. 더 이상 젊은이들이 목숨을 버려서는 않된다.”라고 간절히 말했다.

주제를 바꿔서 살아온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하다가 임근재씨가 내 여자친구를 불러서 같이 이야기하자고 제안했고 김기설씨도 그렇게 하자고 하여 임근재씨는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임무영씨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이보은씨를 북가좌동으로 오도록 하였다. 12시 경 이 보은씨가 도착한 뒤 대화는 신변잡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가끔 김기설씨가 분신항거등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으나 임근재씨와 이보은씨는 가급적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려고 애썼다.

당시의 정황에 대해 이보은씨는 “오늘 저녁에 이지혜라는 여학생이 말을 전한 뒤 과연 사실일까 의심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마음이 불안하고 뒤숭숭했다. 임근재씨로 부터 기설형을 만났다는 전화가 걸려온 이후로는 다소 안심이 되었다. 임근재씨에게 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북가좌동 포장마차로 가니 늦은 밤인데도 사람들이 많아 소란스러웠다. 김기설씨는 전민련에서 일해온 이야기와 전민련에 대한 애정 등에 대하여 심경을 밝혔다. 그리고 나서 여자친구와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었다는 이야기, 알고지낸 사람들을 만났다는 이야기,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다는 이야기 등을 하였다. 이런 이야기 들이 김기설씨가 분신을 결심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민련을 그만두고라도 도와주겠다고 명랑하게 이야기하는 김기설씨를 보고 그가 다른 곳으로 활동의 장을 바꾸려는 결심인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했다.”

세사람은 새벽 2시 30분 경 동네 포장마차를 나와 자취방으로 돌아갔다. 김기설은 피곤하다며 그냥 자자고 하였지만 두사람은 자리를 옮겨 계속 이야기하자고 하였다.

결국 세사람은 나가서 술을 더마시기로 결정하고 자취방을 나오게 되었다. 그때 김기설씨는 츄리닝 차림을 양복정장 차림으로 바꾸고, 방안에 있던 리포트 용지 같은 것을 몇장 찢어가지고 나왔다.

택시를 타고 명륜동으로 자리를 옮긴 세사람은 또다시 포장마차에 들어가 세상사는 이야기와 노래를 몇곡 불렀다.(이 때는 운동가요를 부른 것이 아니라 김기설씨가 평소 좋아하던 ‘소양강처녀’등을 불렀다.)이 때 김기설씨는 자신의 증명사진을 보여주며 ‘죽석사진’이라고 말하였다.

5시가 가까워 졌을 무렵 김기설씨가 화장실에 간다며 포장마차에서 일어나자 임근재씨가 김기설씨를 따라 나와 만류하였다. 이 때 이보은씨는 카운터에서 연대 상황실 임무영씨에게 전화를 걸어 김기설씨의 결심이 확고부동한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상황실에서는 김기설씨를 꼭 잡아두라고 대답하였다. 같은 시각 임근재씨는 김기설씨를 붙잡아 “이러면 안된다. 마음을 돌려라”라고 애원을 하였고, 그러자 김기설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알았으니 다시 들어가자고 하며 포장마차로 들어갔다.

다시 포장마차로 돌아온 세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임근재씨는 김기설씨가 마음을 돌렸다고 판단을 하고 방에서 발견했던 유서메모를 내밀면서 “실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마음을 바꾸겠다는 뜻에서 후배가 보는 앞에서 내가 찢어버려라”라고 하였다. 김기설씨는 별 반응 없이 메모를 받아서 찢었다. 잠시후 김기설씨는 피곤하다며 포장마차에서 나갈 것을 제의하여 세사람은 같이 자리를 일어섰다. 세사람은 방통대쪽으로 걸어갔다. 때마침 부슬비가 오고 있었다. 걸어 가는 동안 편의점에 들어가 세사람은 커피와 초콜렛을 사 먹었다. 커피를 손에 든 세사람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빗속을 걸었다. 동승동 문예회관 앞에 이르러 잠시 피를 피하기로 하고 계단에 모두 앉았다. 이때 김기설씨가 전화를 걸고 오겠다고 하며 계단에서 일어서서 큰길가 쪽으로 걸어갔다.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임근재씨는 이보은양에게 돌아왔다. 이보은씨는 아직도 불안하다며 임근재씨에게 쫓아

가 보라고 하였다. 두 사람이 채 1분도 지나기 전에 다시 공중전화 박스에 가보니 이미 김기설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유서메모도 찢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긴장감이 약간 풀어져 있던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 때의 시간이 새벽 5시 30분 경이었다.

두 사람은 재빨리 혜화 전철역과 동숭동 대학로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김기설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바로 연대 상황실로 연락을 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연대 상황실에서는 비상을 걸어 당시 상황실에서 대기하던 전민련 실무자들을 총 동원하여 김기설씨의 모교로 알고 있었던 한양대와 신촌, 연대 등에 사람들을 배치하였다.

김기설씨를 놓친 임근재씨와 이보은씨는 6시 경 연대로 돌아와 각각 영안실과 연대정문에서 김기설씨를 찾아다녔다.

한편 김기설씨는 그날 새벽 6시 30분 경 홍성은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대 근처에 있다. 잘 살아라. 사랑한다." 이것이 김기설씨가 이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 되었다. 잠시 후인 오전 8시 10분 경 김기설씨는 서강대학교 본관 옥상에서 온 몸에 불을 붙이고 투신하여 사망하였던 것이다.

분신소식을 들은 홍성은이 연대로 온 것은 8일 12시 30분 경이었다. 연대에서 김진수씨와 이영미씨를 만난 홍성은씨는 연대 학생회관 로비에서 울고 있다가 때마침 김기설씨의 신원확인 차 로비 공중전화 박스에서 연락을 취하고 있던 전민련 선전부장 원순룡(28세)씨를 김진수씨의 소개로 만났고, 김기설과 어젯밤에 만났다는 얘기와 함께 그때 김기설로부터 전달받은 수첩을 건네주었다. 수첩을 전달받은 원순룡은 즉시 4층 총학생회실에서 기자회견 준비를 위해 모여 있던 전민련 간부 및 관계자들에게 김기설씨의 여자친구가 수첩을 들고 찾아왔다고 알리고 잠시 후인 1시경 4층 총무실로 돌아와 김기설의 유품관리 역할을 맡은 전민련 편집실 최재인 부장(26세)에게 수첩을 전달하였다. 수첩은 다음날 최재인 부장이 총무국 자료 박스에 담아 놓았고 이 사실을 범국민대책회의 총무를 맡고 있던 이보은양에게 알렸다. 그 후 수첩이 들어 있던 박스는 5월 18일 강경대 열사 장례식 중에 전민련 사무실로 옮겨 졌고 유서대필 공방이 시작된 19일 전민련 조직국 김현수 부장

(30세)이 발견하여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범국민대책회의로 보내지게 되었다.

현재 김기설씨의 유서대필자로 몰려 자살방조의 혐의를 뒤집어 쓰고 구속되어 있는 강기훈씨는 전민련에서 컴퓨터 송수신망을 관장하는 총무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연대에 있던 「범국민대책회의」에는 파견되어 있지 않았고 비상사태를 맞아 전민련 사무실에서 상황을 보고 있었다.

5월 4일 내내 사무실에 남아 전국 투쟁상황을 정리하던 강기훈은 5.4가두시위 도중인 저녁 9시 경 사무실에 들린 김기설씨를 만났다. 그 당시 김기설은 9시 뉴스를 보고 MBC에다 항의전화를 한 이후 서울역에 많은 시위대가 있다는 전화보고를 받고 정목인 부장과 함께 서울역쪽으로 나갔다. 이것이 강기훈씨와 김기설씨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이후 강기훈은 사무실에 남아 전국 투쟁상황 정리를 하고 새벽 1시 경 귀가하였다. 다음날인 5일은 강기훈의 후배인 김진수(27세 강기훈의 대학후배)의 생일축하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강기훈은 오전에 집에 있다가 오후 2시 구의역에서 김진수를 만나 이영미씨의 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홍성은과 합세하여 술을 마시고 놀았다. 6시 이후 건대앞 반달집으로 자리를 옮겼고, 9시 경에 맥주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 몸이 불편했던 이영미는 집으로 귀가하고, 나머지 3인은 고바우라는 실내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다가 1시 30분 경 각자 귀가했다.

6일 강기훈은 숙취로 인해 집에서 쉬었고 오후 2시 경 전민련 총무국의 박선옥씨의 전화를 받았다. 컴퓨터 송수신에 관한 문의 전화였다. 어버이날 전날인 7일은 오전 10시경 사무실에 출근하여 오후 8시 경까지 사무실 업무를 보았다. 퇴근 후 이영미씨와 만나 어버이날 선물을 준비하고 10시 경 귀가하여 8일 오전 2시 경까지 번역작업을 하다 취침했다.

8일 아침 강기훈(전민련 총무부장, 홍성은씨를 김기설씨에게 소개시켜 준 장본인)씨는 오전 9시경 또 다른 분신소식을 들었다. 잠에서 깨어날 즈음 텔레비전 뉴스에서 흘러나온 분신소식에 눈을 떠 텔레비전을 보려는 순간 거의 그와 동시에 여자친구인 이영미(26세, 강기훈씨 대학후배 홍성은씨와 동기동창)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의 내용은 김기설씨가 분신했다는

소식이었다. 강기훈씨는 즉시 연대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실이였다. 강기훈씨는 세수도 하지 않고 어머니의 어리둥절해 하시는 모습을 뒤로 하고 집을 뛰쳐 나왔다. 마음은 한없이 무겁고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그가 사무실에 도착하였을 때 전민련 사무실은 취재진들이 물려 북잡하였다.

사무실에 도착하여 비상사태의 상황을 지역으로 전송하고 상황을 접수하고 있던 강기훈씨에게 오후 2시경 김진수씨가 전화를 걸어왔다. "좀 와줄 수 없겠느냐, 성은이의 상태가 좋지 않다."며 김진수씨는 강기훈씨에게 연대로 와 줄 것을 청했다. 그러나 강기훈씨는 처리할 업무가 남아 있었고, 사무실에 전민련 실무자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 오후 3시 경이나 되서 연대에 도착했다. 학생회관 4층에서 이리저리 헤메이다 총학생회실에 있는 홍성은과 김진수씨를 만나, 식사를 아직 못했다는 홍성은의 말에 1층 식당으로 내려가 식사를 하고 나서 영안실로 가서 분향을 한 뒤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새벽 1시 30분 경 귀가할 때까지 업무처리를 계속했다.

강기훈씨는 9일 오전 10시 30분 경 출근하여 대부분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영정 발송 및 각종 자료 취합, 그리고 9일 대회 전국 집계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그날도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귀가할 수 있었다. 이영미와 홍성은, 김진수, 이 정 등은 9일 12시 30분 경 다시 연대에서 만나 연대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김진수는 이날 홍성은이 검찰조사를 받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김기철씨와의 관계, 만남등에 대해서는 강기훈씨와 상의하라'고 충고 했다.

오후 6시경 김진수와 이 정은 국민대회에 참가하러 가고 오후 6시 30분 이영미씨가 다시 연대로 와서 홍성은을 위해 바지를 가져온 인수를 만나 들리 함께 국민대회에 참가한 후 10시 경 귀가하였다. 김진수와 이 정은 집회가 끝난 후 연대로 돌아와 홍성은을 만났고 김진수는 오후 11시경 이 정과 홍성은을 배웅하고 11시 30분 경 귀가 했다.

10일, 12시 경에 전민련에 출근한 강기훈은 2시경 홍성은의 전화를 받고 3시 종로 5가 봉쥬르 커피숍에서 홍성은과 만났다. 검찰조사를 받을 것 같다는 홍성은의 말을 듣고 강기훈은 "정황이 다 밝혀졌고 내가 관련된 부분이 없으니 사실대로 말하라, 다만 유도 신문에 주의하라"고 이야기 한 후 차를

마시고 헤어졌다.

강기훈은 사무실로 돌아왔고 홍성은과 김진수, 이영미는 명동성당에서 열리는 추모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중앙극장 앞에 모였다. 9시경 추모행사가 끝나 세사람은 사무실에서 일하던 강기훈씨에게 전화를 걸어 10시 경 종로 5가 도이치 호프에서 만나 가벼운 이야기들을 하다가 11시경 홍성은과 이영미를 보내고 1시 30분까지 강기훈과 김진수는 술을 더 마시고 헤어졌다.

11일 강기훈은 오전 11시경 출근하여 14일 장례식에 대한 대책회의의 결정사항들을 발송하고 오후 11시경 귀가 했으며 이영미는 오후 8시에 홍성은을 만나 위로 하고 김진수는 하루를 집에서 쉬었다.

강기훈은 12일 아침 뉴스를 통해 그날이 장례식 날임을 알고 급히 사무실에 출근하여 전민련 사무실 노제를 준비했다. 역시 갑작스레 장례식 날임을 알게 된 김진수, 홍성은, 이영미 등도 12시 경에 만나 서강대 장례식에 참석하여 4시 30분 전민련 앞 노제를 지내고 강기훈은 이들과 합세했다. 이후 6시경 마석 모란공원에 도착하여 하관식을 지켜보고 9시 경에 서울에 도착한 이들은 10시경 종로 5가 도이치호프에서 술을 마시며 침울한 기분을 잊고자 가벼운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다가 11시 30분 경 홍성은과 이영미는 귀가하고 강기훈과 김진수는 홍성은을 걱정하며 기독교회관 맞은편 '터'에서 술을 더 마시고 1시 40분 경 전민련 사무실로 들어와 잠을 잤다.

13일 강기훈과 김진수는 사무실에 있다가 오후 6시 신촌 호프집에서 이영미, 방수연, 이 정과 만나 술을 마시다가 신촌시장 내의 '페드라'로 자리를 옮겨 홍성은의 집으로 이영미가 전화를 하였다. 그때 그들은 홍성은의 연행 소식을 듣는다.

그러나 이미 밝혀진 사실들을 확인하는 정도일 것이며 금방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10시 30분 경 귀가하다가 강기훈은 마음을 바꾸어 김진수와 11시 경에 전민련 사무실로 왔다.

14일 강기훈은 강경대 열사의 장례식을 준비하며 김진수와 사무실에서 지낸 후 함께 취침했다. 15일도 역시 김진수와 보냈다. 다음날인 16일 오후 2시 경 강기훈은 김진수와 함께 홍성은 문제로 박원순 변호사를 만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있다가, 자신의 집으로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가택 수색을 당했음을 알았다. 이에 11시경 김진수와 연대로 갔다. 크게 걱정할 것 없다

는 중론에 따라 2시30분 경 연대 상황실에서 취침했다.

17일 강기훈은 이영미가 16일 출근 중 연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12시 경 이석태 변호사와 만났다. 그리고 강경대 장례식에 관한 기자회견 장에서 기자들에게 불법연행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18일 강기훈은 강경대열사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오후 5시 경 검찰에서 유서대필 용의자로 자신을 지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홍대에서 8시 30분 경 조직부장 김현수씨를 만나고 10시 경 명동성당에 들어와서 농성에 합류했다.

살아있는 김기설. 독재권력의 공안폭력에 의한 고 강경대열사의 죽음 이후 온나라는 정권이 장 기집권을 위해 벌여온 공안통치의 종식과 노태우정권퇴진을요구하는 범국민적 합성으로 채워졌다. 정권타도를 예고하는 봉화 형렬처럼 온몸으로 분신할거하며 산화해간 열사들의 죽음 또한 헛되지 않기를 산 사람들은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은 악의에 찬 유서대필 조직극으로 반인륜적 행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사진은 분신직전 열사가 참석한 5월 4일의 집회.



고 김기설동지

김기설동지 분신행거의 전후 정황

5월 5일

- ▶오전 10시 방통대 게시판 앞에서 방통대 소리새벽 소속학생 6명과 만나 동아리방으로 가서 모임을 함. (김동지의 수첩에 B/T 게시판 이라는 기록으로 남아 있음)
- ▶오전12시-4시 동아리방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노래와 대화를 나눔.
- ▶오후4시-7시 「유정」이라는 인근 술집에서 박경민, 김운희, 문운희, 송국영, 이지혜, 신기환씨와 함께 있다가 박씨와 신씨는 먼저 감.
- ▶오후7시-8/30 학림다방에서 남은 셋이 차를 마심.
- ▶8시30분-9/30 김기설동지가 아는 술집에 갔다가 문이 닫혀 종로 5가 백제여관에 투숙.

5월 6일

- ▶오전9시경 송국영씨 먼저 나감.
- ▶오후2시경 이지혜씨와 함께 여관에서 나와 bus편으로 광화문으로 와서 식사를 함께하고 식당에서 홍성은씨에게 전화를 걸었음. 다시 버스편으로 마포 가든호텔 부근으로 왔고 인근 카페 '장미빛 인생'에서 수첩 주소록의 중요한 전화 번호에 녹색펜으로 표시를 하였음. 또한 사진관에서 즉석 인화되는 증명사진을 찍음.
- ▶오후3시30분경 김기설동지가 가든호텔 쪽에서 연대로 가는 BUS를 타는 것을 확인하고 헤어짐.
- ▶오후4시경 연세대 범국민대책회의 상황실에 들러 자료를 챙겨 성남으로 떠남.
- ▶오후5시-6시 경원대 구내에 있는 천세용 열사 범대위 사무실을 방문

터사랑회원 이창희 군동과 인사를 나누고 용무를 본 후 영안실에 가겠다고 나섬.

- ▶오후6시 30분경 터사랑 사무실에 도착하였고 당시 사무실에는 다수의 터사랑 회원들이 있었음.
- ▶오후8시 30분경 황토현 서점에서 이호경 전 성민청회원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9시 30분 만나기로 약속을 함.
- ▶오후 9시경 집에 있던 김병희씨에게 전화를 해서 이호경과의 약속장소인 「까므앙」이라는 카페로 나오라고 함.
- ▶오후9시30분경 김기설동지와 전민청회원인 연희씨가 약속장소에 나오고 굳이 10시쯤에 이호경씨가, 10시 10분경 김병희씨가 도착 11시까지 차를 돌며 대화를 나눔. 김동지는 이날 병희씨의 집에서 잠을 자기로 약속을 해둠.
- ▶오후11시경 김병희씨는 터사랑 사무실에서 기다리기로 하고 김동지와 연희씨 호경씨는 도이치 호프로 자리를 이동 12시까지 맥주를 마심.

■ 5월 7일

- ▶0시10분경 김기설동지 터사랑사무실에 와서 김병희씨와 함께 김씨 집으로 감. 집에 도착한 시간은 12시 30분쯤 임. 집에서 곧 잠자리에 듦.
- ▶오전8시 30분 김동지와 병희씨는 일어나 병희씨의 재촉으로 급히 세수만 한 후 곧바로 좌석버스편으로 흑석동 중앙대로 감.
- ▶오전9시 50분 중앙대앞에 도착 곧바로 병희씨는 수업에 들어가고 김기설동지는 89번버스를 타고 신촌방향으로 향함. 그러나 12시 연대 학생회관 로비에서의 방통대생 김용희씨와의 약속에는 나오지 않음. 김기설 동지의 정확한 동선은 알 수 없으나 임근재, 이보은씨와 만난자리에서 연대에 잠깐 갔었는데 아무도 안만나고 나왔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연대에 왔을 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다.
- ▶오후시간 김기설동지의 오후 행적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다. 다만 2시경 민주화운동직장청년연합 사무실에 들러 서울

지역민주청년단체협의회 소속 홍만희씨등과 이야기를 나누다 2시 30-40분 경에 돌아갔음이 확인될 뿐이다.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7시 30분경 홍성은씨를 만난 자리에서 잠을자고 나왔다는 말을 했었고 임근재씨가 김동지를 찾으러 북가좌동 자취방에 갔을때 평소와 달리 잠자리가 퍼져 있었던 점과 이후 임근재, 이보은씨에게 잠을 많이 잤더니 머리가 아프다라고 했던 점을 미루어 수면을 취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오후7시30분 김기설 동지는 이대부근에서 홍성은양을 만났다. 동지는 홍양에게 내일이 어버이날인데 마음이 아파 전화를 할 수 없으니 전화를 대신 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또 수첩의 전화번호부를 뜯어 연락을 부탁하려다 홍양이 받지 않자 수첩채로 말긴다. 홍양과는 10시 30분 쯤 헤어졌다. 이후 홍양은 오후11시경 김동지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전함.
- ▶오후9시 40분경 연대 범국민대책회의 상황실로 이지혜양이 찾아와 김동지의 결심을 알린다. 이양은 6시30분경 마포 가든호텔부근에서 김동지를 만나기로 약속이 되었는데 나오지 않자 3시간 가량을 기다리다 염려스러운 마음에 찾아왔다고 밝혔다. 소식을 전해들은 임무영씨와 이보은씨는 같은 방을 쓰는 임근재, 장준호씨를 찾고 관계가 있는곳에 수소문하여 김동지의 행방을 찾아보고자 했다. 특히 성민청회원으로 부터 가족과 친구 한송흙의 전화를 알아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는 못했다.
- ▶오후10시20분경 임근재씨가 집으로 김동지를 찾으러 가고 장준호씨는 같은 청년단체회원 김문정을 통해 홍성은양을 찾아가 만났다. 성은씨를 만나는 중에 연대 상황실로 전화를 하여 김기설씨와 임근재씨가 같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성은씨를 안심시킨 뒤 연대로 돌아왔다.

- ▶오후11시경 방통대생 박경민씨가 6일 저녁 만난 이지혜, 송국영씨로부터 얘기를 듣고 김기설씨를 찾는 전화를 계속하다가 본인과 연결이 안되자 7일 오후11시경 연대 상황실로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은 최종진 상황실장에게 김동지의 결심을 알리고 동지를 찾아줄 것을 부탁했다. 최실장은 전민련측에 이 사실을 알렸으나 이시간 전민련은 이미 알고 있었다.
- ▶오후11시20분경 자취방으로 김기설동지를 찾아간 임근재씨가 방안을 뒤지다가 김동지가 쓰다둔 메모를 발견하고 기다리다 나오는 길에 김기설동지를 만나 김동지에게 술을 마시러 가자고 권유, 함께 자취방 부근 실내포장마차로 행함.
- ▶오후11시40분경 임근재씨 연대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김기설씨와 함께 있음을 알리고 이보은씨에게 와줄것을 부탁.

5월 8일

- ▶오전0시20분경 북가좌동 포장마차에 이보은씨 도착. 곧 연대로 전화를 하여 임무영씨에게 도착했다 알려줌.
- ▶오전1시 30분경 이보은씨는 연대상황실로 전화. 상황을 알림.
- ▶오전2시30분경 셋이 함께 북가좌동 자취방으로 올라가 김동지가 운동복을 양복상하의와 티셔츠차림으로 갈아입고 명륜동을 향함.
- ▶오전3시30분경 명륜동의 술집에 도착
- ▶오전4시20분경 밖으로 빠져나가는 김동지를 임근재씨가 붙잡아 밖에서 이야기를 나눔. 이때 이보은씨는 연대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임무영씨에게 상황을 알림.
- ▶오전5시경 김기설동지의 제안으로 술집을 나와서 대학로 방향으로 걸었음. 중간에 씨글-K라는 편의점에 들러 커피등을 먹음.
- ▶오전5시20분경 마로니에공원에 들어감.
- ▶오전5시30분경 김기설동지 전화를 걸 곳이 있다며 전화박스로 들어감. 임근재씨가 쫓아가서 전화박스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돌아옴. 1분정도 지나 김동지가 돌아오지 않자 공원밖으로 뛰어나가 김동지를 찾았으나 보이지 않자 임근재씨 지하도 방향으로 찾으러가고 이보은씨는 연대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사태를 알림. 연대를 봉쇄하고 김동지를 찾을 것을 당부. 이후 6시50분경까지 울어져서 대학로 부근을 찾아봄.

- ▶오전5시50분경 연세대로 다시 전화를 걸어 일단 연대로 들어오라는 지시를 받고 택시편으로 연대로 향함.
- ▶오전6시10분경 임근재, 이보은씨가 연대학생회관으로 들어가려 할 때 김동지를 찾아나선 임무영씨 등 3-4인을 만나 영안실, 정문, 학생회관 등으로 울어져 김동지를 찾음.
- ▶오전7시10분경 연대상황실로 홍성은양이 전화를 해서 6시반경 김동지가 이대부근에서 전화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나서 임근재씨는 북가좌동 자취방으로 김동지를 찾으러 갔고 이보은씨와 김근욱씨는 연대 후문을 통해 이대방향으로 찾아나섰으며 임무영씨는 학생회관을 뒤졌고 나머지는 계속 해서 정문, 영안실 등을 지켰다.
- ▶오전8시07분경 서강대에서 김기설 동지 분신.
- ▶오전8시13분경 김기설 동지 서강대에서 승용차편으로 세브란스로 후송 중 절명.
- ▶오전8시20분경 서강대 총장, 총무처장 현장확인.
- ▶오전8시30분경 김동지의 신원이 확인되어 연대 상황실로 연락이 옴. 곧 임근재씨 서강대로 택시를 타고 달려감.
- ▶오전8시45분경 임근재씨 서강대학생들이 보여준 김동지가 벗어는 옷주머니에서 나온 사진으로 김동지임을 확인한 후 서강대 총학생회장장과 임근재씨 사건현장을 확인하기위해 옥상으로 올라갔으나 수위들에 의해 제지당함.
- ▶오전 9시경 범국민대책회의 최종진 상황실장과 대변인실1인, 전대협 간부 1인이 서강대에 도착하여 임근재씨, 서강대 총학생회장장과 함께 박홍 총장을 만나 논의를 했다.

- ▶오전11시경 전민련상임집행위원과 청년단체대표, 성남친구들로 고 김기설동지 분신항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창군 전민련상임의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집행위원장은 서준식, 대변인은 인재근씨가 맡음.
- ▶오후12시30분경 기자회견
이지혜, 송국영, 박경민, 임근재씨등의 증언이 있음
- ▶오후4시경 서울지검 강력부 신상규검사, 송명석검사, 검찰계장, 마포서 검시형사 2인과 이수호 대책회의집행위원장과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검안이 이루어졌음.



제 2장 진실과 날조의 공방

1. 『죽음 조종하는 배후 있다』
2. 분신을 선동하는 배후세력이 있다니요!!
3. 『결백 밝히려 출두합니다』
4. 『아들 누명 억울... 진실 밝혀질 것』
5. 유서대필 조작사건 공소장
6. 유서대필 조작사건 수사발표문
7. 어처구니 없는 검찰 『대필』 수사
8. 전대미문의 유서대필 날조조작

“죽음 조종하는 배후 있다”

서강대 박홍총장 기자회견 주요내용

생명존엄성 악용세력 실체 밝혀야

서강대 박홍 총장은 8일 낮 교내 메리홀 강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날 오전 발생한 김기설씨 분신 투신사건과 관련, “죽음의 블랙리스트가 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배후에 분명히 죽음을 조종하는 선동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총장은 “생명은 존중과 사랑의 대상이지 지배와 착취의 대상이 아니다”며 “시신도 존중과 사랑의 대상인데 이것조차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나쁜 놈’들”이라고 비난했다. 이날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곧 김씨가 투신한 서강대 본관 옥상에 올라가 유서와 유품을 챙기고 김씨의 신원확인을 위해 전민권관계자들을 만나는 등 사건진상파악을 했던 박 총장은 김씨 사건 배후에 조종자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총장은 배후세력을 ‘전염병균 같은 이들’이라고 규정, “이들은 그들에서 엄청난 힘을 갖고 자신도 죽고 남도 죽이는 ‘물귀신 공법’으로 물 마시듯 폭력을 전염시키고 있다”며 “사상적 혼돈이 행동의 혼돈으로 즉시 나타나는 젊은이들에게 이들의 거짓 이념이 확산될 경우 노동운동이나 민주화운동 모두 끝장”이라고 경고했다.

박 총장은 또 “젊은이들의 분신자살은 ‘죽음의 세력’에 무릎을 꿇는 일”이라며 “어버이날인 오늘 부모의 자식임을 거부하는 등 인륜을 저버리고 조국의 아들됨을 선포하면서 죽은 젊은이 뒤에 숨어 있는 ‘죽음의 세력’의 실체를 똑똑히 깨닫고 단호히 잘라버리는 것이 우리 살아 있는 사람들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총장은 “문둥병균이 햇빛에 나오면 바로 죽듯이 그들 속에서만 힘을 갖는 이들의 실체가 광명한 진리 앞에 폭로될 경우 존재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성서에 왼손을 얹은 채 기자회견에 임한 박 총장은 “이 죽음을 ‘조출하게’ 슬퍼하고 뒤에서 죽음을 조종하는 어두운 선동세력의 실체를 폭로해 ‘죽음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선포식을 가집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신을 선동하는 배후세력이 있다니요!! 박홍총장님께 묻습니다

박홍 총장님!

5월 9일자 일간지를 뒤덮은 「분신선동 배후세력 철저조사」 기사에 유난히 박홍 총장님의 말씀이 눈에 띄어 저희를 당혹케 합니다. “지금 우리사회에서 는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우리는 이 세력의 실상을 반드시 폭로해야 한다.”

박승희, 김영균, 천세용, 김기설 열사의 분신투쟁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며 배후세력의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정구영 검찰총장의 발언과 견주 어 조금도 손색없는(?) 박홍 총장님의 말씀에 우리는 망연자실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총장님! 분신을 선동하는 배후세력이 있다니요! ‘민중의 지팡이’라 지칭 하는 공권력의 쇠파이프에 맞아 죽은 강경대 열사의 죽음은 최루탄과 화염병 의 치열한 공방전에서가 아니라 독재와 민주간의 화해할 수 없는 투쟁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노태우 정권 3년 반, 민자당 창당 1년간의 학정은 4천만 민중을 극심한 생활고와 공안탄압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으며, 우리에게 참혹하게 맞아 죽은 어린 강경대 열사의 죽음을 안겨주었습니다. 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독재를 끝장내고 다시는 이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노라’ 노태우 독재와의 일전을 결심하였습니다. 박승희, 김영균, 천세 용, 김기설 열사는 꽃다운 청춘을 불살라 노태우·민자당 독재에 대한 심판의 길에 하나같이 떨쳐일어나길 온몸으로 호소하며, 노태우 독재를 끝장내는 투쟁의 도화선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87년 권인숙양을 성고문하고도, “운동권이 성을 혁명의 도구화하려 한다” 고 발뺌하던 검찰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추악한 독재집단은 천추에 용납 못할 만행을 저지르고서도 이를 왜곡하며 오히려 탄압에 광분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5·9국민대회를 원천봉쇄하고 ‘현시국에 대한 강경대 처’란 정부의 발표에 뒤이어 아니나 다를까 ‘분신의 투쟁의 도구화’라는

논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성의 혁명도구화'에서 '분신의 투쟁도구화'로…….

총장님! '민주총장님'으로 6천 서장의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으시던 박흥 총장님께서 사건을 왜곡하며 탄압을 더욱 노골화하려는 독재집단의 더러운 궤변을 뒷받침해주는 '분신선언 배후척결' 운운하는 발언을 보며 6천 서장은 실망스럽고, 부끄럽고, 원통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총장님! 살아 남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이 '배후세력 척결' 운운하는 열사를 옥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농민·학생의 피를 먹고 사는 노대우 독재를 끝장내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에 총장님도 함께 할 것을 부탁드리며 5월 9일 일간지에 실린 총장님의 발언에 대한 공개해명, 공개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민주·통일의 불바람 사학과 '단결' 사회부-

“결백하려고 출두합니다”

“오직 진실과 양심으로 정권의 부도덕과 타락을 심판하는 증인으로 법정에서 서립니다.”

무슨 세사실이 밝혀진양 악용한다면, 그것은 저에대한 강압수사의 증거일 뿐

저는 오늘 검찰청에 자진출두합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결백하기에 저의 깊은 멧뚤 자진출두의 결백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유서대필 용의자로 지목된 지난 18일부터 지금까지 저는 명동성당에서 자진출두 시기를 늦추면서 국민 앞에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는 저를 증거도 없이 범인으로 단정하는 엄청난 언론공세로 밀려 마지막 벼랑까지 물러왔던 제가 거의 양심과 진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안간힘이었던 것입니다.

사실이 밝혀진 것인 양 또다시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면 그것은 저에 대한 강압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한때 저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 중의 하나이며, 친구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조작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한 홍성은 양이 자유로와진다는 것을 전제로 자진출두하겠다는 생각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의 자진출두가 홍성은양의 자유를 하루라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홍성은양은 최근 사실상 수사기관에 의해 억류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참고인을 불법수사하고 한 달 이상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억류하는 것은 사건을 조작하려한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유례가 없는 인권침해입니다. 홍성은양은 즉각 자유로워져야 하며 사건의 진상을 공개적으로 증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미 모든 사실은 저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밝힌 진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거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저에 대한 재판은 실은 검찰의 부도덕함과 타락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는 재판이 될 것입니다.

다시말해서 그것은 검찰이 정권의 허수아니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재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피고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설 것입니다. 잠시후엔 검찰청으로 떠나게 될 지금의 제 심정은 진실하기에 멧뚤하면서도 한편으로 하소연할 길 없는 억울함과 무거운 마음이 교차함을 숨길 수 없습니다. 결백한 저에게 유서대필자, 자살방조범이라는 범죄자의 굴레를 씌우려드는 공권력에 맞서 재양심을 지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저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거대한 공권력에 의해 거짓과 비양심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무고한 개인이 권력의 힘에 의해 끝내 범죄자로 낙인찍히게 된다면 그런 사회에서 인간에 대한 어떤 신뢰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국민 여러분!
검찰의 조사과정과 법원의 재판과정을 공정한 눈으로 지켜보아 주실 것을,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가를 부릅뜬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아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는 농성기간 중 많은 분들과 만나면서 이 땅에 양심이 살아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저에게 성공을 전달해 주신분들, 손을 꼭잡아주시면서 힘을 내라고 말씀해 주신 많은 시민들과 종교계의 지도자분들, 특히 가톨릭이 보여주시는 관심과 격려는 '진실은 통한다'는 믿음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갖은 피해를 감수해 온 명동성당 관계자 분들과 신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6월 24일 자진출두에 앞선 강기훈씨의 성명

합내라! 강기훈
너의 진실은 승리하리라
단국대 민주동문회 81, 82지부

강기훈은 승리했다.
노경년 회회들의 조작극은
이제 끝났다.
단국대 민주동문회 83, 84지부

“金씨 분신옥상서 2~3명 목격”

검찰 교수 신고따라 自殺방조 여부 수사



○경남대 박희송장은 5월 9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분신자들의 최후를 생중-이름-실정하는' '분신' 발언인 세력, 이 문항이 있다고 밝혔다.

환상바청년들 '인상착의 탐문조사'
全民聯간부 관련 집중추적
사법경찰관들이 5월 10일 오후 1시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김기훈씨를 찾아내어 조사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김기훈씨를 찾아내어 조사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시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김기훈씨를 찾아내어 조사했다.

죽음조종하는 背後있다

서강대 박희송 회장 生命 존엄성 악용세력 實體 밝혀야

서강대 박희송장은 5월 9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분신자들의 최후를 생중-이름-실정하는' '분신' 발언인 세력, 이 문항이 있다고 밝혔다.

수수들 잇단 시국선
서강대 박희송은 5월 9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분신자들의 최후를 생중-이름-실정하는' '분신' 발언인 세력, 이 문항이 있다고 밝혔다.

유서대필 조작사건 공소장

1. 피고인

- 1) 본 직 :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산1
- 2) 주 거 : 서울 성동구 자양3동 277-158
- 3) 직 업 :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총무부장
- 4) 성 명 : 강 기 훈(姜基勳)
- 5) 주민등록 : 640329-1017313

2. 죄 명

: 자살방조(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3. 구 속

: 1991년 6월 24일

4. 변호인

: 유현석외 14명

공소사실

피고인 강기훈은 1982.3. 단국대학교 문리과 대학 화학과에 입학하여 1985.8.31. 학사 경고 제적을 당한 자로서, 단국대학교 “군부독재 타도와 민중민주정부 수립 및 민족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위원회(약칭:삼민투위)”위원장으로 활약하던 중 1984.11.5. 서울 형사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구류 10일을, 1985.8.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구류 10일을 각 선고받고, 1985.11.18. 서울 강동구 가락동 소재 민정당중앙정치연수원에 침입, 농성, 방화한 소위 『가락동민정당연수원점거농성사건』을 주동한 혐의로 1986.3.28. 서울 형사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마산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1987.7.8. 경 가석방으로 출소(형기 종료 예정일:1987.11.30.)하고, 1988.12. “노동자계급이 중심으로 기층민중이 단결, 무장봉기 하여 현정부를 타도한 후 임시혁명정부를 구성,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한다”는 등의 강령으로 학생운동권 출신인 공소의 노성철, 이종원 등 4명이 결성한 이적단체인 ‘혁명의 불꽃’그룹에 ‘상우’라는 가명으로 가입하고 위 단체가 89.8. “혁명적 노동자 계급투쟁동맹”(약칭:혁노맹)으로 확대 개편된 후 계속 위 노성철

나는 분신자살한 김기철씨의 유서대필 혐의를 받고 있는 강기훈의 어머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유서대필 공방을 지켜보 다 못해 펜을 들었습니다.

엄청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어머니로서의 정신적 고통은 짐이두고라도 어떻게 보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검찰의 억지에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또 분노를 누를 길 없습니다. 검찰의 말대로라면 우리 기훈이는 흉악한 괴물이 아니면 신중귀물하는 흥길동이란 말입니까? 아니면 김기철 씨를 대신해 살았던 말입니까? 유서도 대신 썼고 임무일지도 수첩도, 홍양에게 준 메모까지도 대신 썼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또 유서를 대신 써준 사람이 어떻게 김기철씨가 죽는 그 시간에 태연히 정신없이 잠잘 수가 있을까요? 나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분신 전날(7일) 밤 10시 반쯤 어버이날이라고 꽃과 선물을 사 들고 돌아와서는 동생과 늦게까지 얘기하다가 갔고 본래 늦잠을 잘 자는 아이라 아침 9시45분 텔레비전 뉴스가 나올 때까지 자고 있기에 내가 깨 있었습니다.

지난 16일 정오 좀 지나 들이닥친 압수 수색은 지금 생각해보니 짜여진 각본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하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글씨에 유난히 신경을 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뭐 글씨냐?” 하는 질문을 여러번 받았고 안방에 있는 가계부 또는 내가 성경공부한 글씨들을 살살이 읽어보려는가 하면 심지어 아이들 성적표를 보고 “이것 기훈이가 썼느냐” 하고 물었으니깐요. 책들과 노트들, 수첩들과 사진들, 내가 수년 전 안방과 마루에 니스 칠할 때 쓰고 남은 연지가 보얗게 앉은 시너통까지 다락을 뒤져서 가지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머칠 뒤 전편에서 기훈이 글씨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의 글씨는 아무데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 집안을 팔과 함께 난장판을 만들고 나서 겨우 찾아 낸 것이 잠동사나들 사이에 끼여 있는 편지들을 팔에 방 벽장에서 골라냈습니다. 이 편지들은 우리 기훈이가 학생운동하다 잡혀 마산교도소에 복역할 때, 가족들에게 보낸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것도 기훈이 필적으로 믿으려 하지 않았는지요? 검찰 산하의 교도소에서 교도관 입회하에 썼고 검열하고 검열필 도장까지 찍힌 편지를 믿지 못한다면 무엇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 사람의 분신자살자 중에 유독 김기철씨만이 수사의 대상이 됐다는 것도(유서 쓴 사람이 이 사람뿐이 아닐 것인데) 이상한 일이고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유서의 필적이 죽은 사람 것인가부터 확인하는 것이 상식일 것 같은데 내가 느끼기에 대신 쓴 사람부터 정해 놓고 수사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군요.

나는 요 며칠 동안 김기철씨의 글씨를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신문에서나 또는 명동성당에서 자료들을 정리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참 사람들이 어떻게 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많이 놓고 보니 더욱 확연하게 그의 글씨는 대개가 오

것을 알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홍양과 김기철씨의 분신 전후에 집중적으로 만났다 하는 것도 10일과 12일 두번을 가지고 파대 발표했고요. 자기가 소개한 후배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선배로서 또 소개한 책임도 있는데 두번 만나 위로한 것이 어떻게 대책회의가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번에 기자분들한테도 큰 실망을 느꼈습니다.

물론 검찰의 발표대로 보도하다보니 그렇게 됐지만 연일 대서특필하여 한사람을 죽일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살방조 집중수사” “전민련 강씨 신병 확보 나서” “유서대필의 분신개입 흔적” “전민련서 김씨수첩 조작 가능성” “강씨 내일 연행” “강씨가 유서작성 단결” “강씨 홍양 수첩에도 가발” 등등 신문을 펼치면 그때마다 큰 활자들이 내 가슴을 내리치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이 분노와 공포를 기자분들은 짐작이나 하시는지요?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죄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는데 당사들은 매일 당신들의 그 조그만 무기로 한 사람을 흉악한 죄인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개구리에 돌을 던지는 아이들은 재미로 그런 짓을 하겠지만 당하는 개구리는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는 것을 기억해주시시오. 일반 사람들은 그 큰 재목만 보고 강기훈을 흉악한 죄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9십이 넘는 기훈이 조부님도 사색이 되셨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두십시오.

검사님들께 말합니다. 제발 홍양을 내놓으십시오. 내놓고 여러 사람 앞에서 대질을 시켜보십시오. 국민들을 그만 속이시고 명명백백하게 가려내 주십시오. 앞길에 창창한 젊은이를 그런 식으로 죽이지 마십시오.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야 한다는 것도 모르던 평범한 가정주부가 분노의 가슴을 안고 이런 글을 쓰게 된 이 시절에서 운동권은 권력자들에 의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이만 맺겠습니다. 권 대 평 <서울 성동구 자양3동 227-158>

아들 누명 억울...진실 밝혀질 것

‘유서 대필’ 혐의 강기훈씨 어머니 글

른쪽으로 우리 아이 글씨는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던군요. 그리고 그의 글씨는 약간 길고 달팽이이고요. 어떻게 이 두가지 글씨들을 같은 사람이 썼다고 생각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미이기 때문에 아전인수로 해석하기 때문일까요? 이제 속속 김기철씨의 글씨가 이곳저곳에서 나오니까 검찰은 “필체 감정은 풀렸다. 곧 자살방조나 교사죄로 구속하겠다” 하니 참 너무 억울하고 기가 막힙니다. 앞에 말한 시너통은 내가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도 “그렇기는 하지만 가져가야겠다” 하더니 어느 신문에 보니 그것을 단서로 삼을 수도 있겠더군요.

나는 후배들과 술 먹은 것이 대책회의로 돌감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이 서글롭습니다. 처음 대책회의 얘기가 보도됐을 때 아마 전민련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동료들이 슬자리를 마련하여 울컥한 마음을 풀려 했었나보다 하고 내내들으며 짐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문제의 홍양과 이영미양 그리고 저도 잘 아는 기훈이의 후배 김군과 넷이서 한자리였다는

강기훈부장을 즉각 석방하라

등과 접촉하면서 '김정훈'이란 가명으로 활동하는 한편 1989.5. 경 부터 현재까지 '이현우'라는 가명으로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약칭:전민련)에 가입, 그 총무국 부장직에 있는 자인 바, 피고인과 함께 전민련에 근무하는 사회부장 김기설이 1991.4. 중순 경 가족들에게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등 삶의 의욕을 보이다가 같은 달 26.소위 강경대군 치사사건이 발생하여 재야운동권의 반정부투쟁분위기가 고조되자 민중을 자극하여 고조된 반정부 투쟁분위기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하여 분신자살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고 동 김기설의 분신자살 결의와 결행을 용이하게 할 의도로

1991.4.27.경부터 같은 해 5.8.까지 사이의 일자 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한국신학대학 리포트 용지에 검정색 싸인펜으로 김기설 명의의 유서 2매를 작성함에 있어, 동 김기설은 1982. 경 경기 파주군 광탄면 소재 광탄중합고등학교 1년을 중퇴한 학력의 소유자로 지시과 문장력이 부족함에도 피고인의 지식과 문장력을 이용, "단순하게 변혁운동의 도화선이 되고자 함이 아닙니다.역사의 이정표가 되고자 함은 더욱 아닙니다.아름답고 맑은 현실과는 다르게,슬프게,아프게 살아가는 이 땅의 민중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까 하는 고민속에서 얻은 결론이겠지요... 이하생략 - 김기설-"이라는 내용의 유서(1)와 동 김기설은 6세대 생모가 사망한 후 주로 누나 손에서 자라나 생모에 대한 기억은 물론 계모에 대한 정이 전혀 없어 유서의 내용에는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 없고 오히려 큰 누나 김화자를 비롯한 3명의 누나와 3명의 자형들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누나들과 자형들에 대한 내용이 전혀없이,아버지,어머니 만을 대상으로 "아버지,어머니 어버이날 입니다.오늘 이 행위를 일삼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여러가지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여지껏 한번도 아버지,어머니에게 효도라는 것을 해보지 못했지요.이제 기설이가 아버지,어머니의 아들이 아닌 조국의 아들이 됨을 선포하면서 마지막 효도를 하려 합니다.모든 문제를 대책위 사무실에 위임하세요.전민련 선택이 형,서준식 인권위원장님에게 위임하세요.제 목숨 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선배님들 입니다.-기설-"이라는 내용의 유서(2)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동 김기설의 분신자살을 조국과 민중을 위한 행위로 미화하여 동 김기설로 하여금 분신자살의 결의를 확실하게 함과 동시에 사후 장례의식 등 모든 문제를 서준식,김선택 등 전민련과 소위

강경대 사건 대책위에서 책임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김기설의 분신자살 결심과 결행을 용이하게 도와주어 동 김기설이 1991.5.8. 08:07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서강대학교 본관 5층 옥상에서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유서 2매와 사진및 상의등을 남겨 놓고 전신에 시너1통(약 2리터)을 뿌리고 소지한 1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인후 약 16.5미터 아래 지상으로 뛰어 내리게 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후송중인 같은 날 08:20경 전신화상,전두골함몰골절,골반골절및 두개강내출혈,골반강내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위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한 것이다.

유서대필 조작사건 수사발표문(요지)

■유서대필에 관하여

▲피의자 강기훈은 당초 검찰 신문에 목비하다가 뒤늦게 유서의 필적이 김기설의 필적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유서를 대필한 일이 없을 뿐만아니라 분신사건 발생 이후에야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비로소 그 소식을 들었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음.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면 유서 필적이 김기설의 평소 필적과는 상이하며 강기훈의 자술서및 강기훈 스스로 자필임을 시인하는 화학노트 등과 동일한 필적임이 판명되었음. ▲ 김기설의 여자친구 홍성은의 진술에 의하면 5월 7일 저녁 김기설로부터 다음날 분신자살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23시30분 쯤 강기훈에게 전화를 걸어 김기설의 부 김정렬의 전화번호를 불러주며 내일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강기훈은 홍성은에게「미안하다」라는 말을 세번이나 하면서 전화번호를 적지도 않는 등 이상한 반응을 보인점으로 보아 강기훈은 김기설이 분신하려 한다는 정을 그 전화 이전에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수첩 등 필적조작에 관하여

▲피의자 강기훈은 수첩이나 업무일지의 필적이 김기설의 필적과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이를 조작하거나 이에 관련된 바는 없다고 부인하고 있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수첩의 필적은 김기설의 필적이 아니며 강기훈의 자술서 및 강기훈이 자필임을 인정하는 화학노트 등과 동일한 필적이고, 수첩에서 찢어진 전화번호란 3매의 절취선이 잔류면과 중복 불일치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음. ▲참고인 홍성은은 인재근, 김진수의 지시에 따라 검찰 1회 조사시 수첩의 존재를 묵비하였으나, 검찰 2회 조사시 부터 수첩의 존재를 시인하면서 자신이 전민련 측에 위 수첩을 넘겨줄 당시 위 수첩의 기재형태, 필기도구, 기재내용, 찢겨진 부분등의 성상에 대하여 여러가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찰에 제출된 수첩과 홍성은의 위 진술내용을 대조해 본 결과 수개 부분의 성상이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검찰에 제출된 수첩은 홍성은이 김기설로부터 넘겨받아 전민련 측에 넘겨준 수첩 진본이라고 볼 수 없고, 사후에 조작된 수첩으로 판단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전민련 측에서 당초 업무수첩을 은폐하면서 김기설의 필적이라고 제출한 사회국 업무일지의 필적은 김기설의 자필 필적과는 상이하며 오히려 강기훈의 필적과 동일한 것으로 판명되었음. 그 업무일지의 성격상 장기간 여러차례에 걸쳐 작성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제출된 업무일지는 필흔, 날자, 횡선 등 업무일지의 성상으로 보아 같은날 작성된 것이 역력함.

■범행은폐기도에 관하여

▲홍성은의 진술에 의하면, 5월 10일 15시 30분쯤 종로 5가 카페에서 강기훈과 단독으로 만났을 때 홍성은에게 「검찰조사를 받게 될 경우 예, 아니오 등으로 간략히 답변하고 불필요한 말이나 불필요한 사람을 끌어들이지 말라」며 이영미의 존재등을 묵비하도록 암시하였고, 같은일시, 장소에서 홍성은의 수첩에 김기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함으로써 검찰의 필적오인을 유도하였음. ▲도이치 호프 집에서 홍성은, 이영미, 김진수와 회동하여 대화중 김진수가 「내가 박래전, 최덕수 등의 분신사건 때 장례를 직, 간접으로 지원

하였는데, 이번 사건에서 성은이를 등장시킨 것은 최대의 실수」라고 말하자 강기훈이 「이미 엇질러진 물이다」라고 대꾸하였고, 이어 5월 13일 22시30분쯤 신촌시장 내 주점에서 이영미, 김진수, 방수연, 이정 등과 회합한 자리에서 이영미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김기설과 홍성은이 만난 경위에 관하여 이영미는 관여한 바 없고, 강기훈과 이영미가 애인관계라는 사실은 시인하되 전민련에 관하여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진술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은폐 대책을 논의하였음.

손꼽히는 수사통이지만 같은 결과때문인지 「수사 결과가 미진한데 따른 책임을 지겠다」면서 사건취재를 한사코 거부. 한편 검찰과 재야의 명예가 절린 이사건의 수사를 지켜보는 범주계에서는 「姜씨의 위장한 부인과 참고인들의 불출석때문이기긴 하지만, 최고수사기관으로서 기본적인 범죄사실조차 밝혀내지 못한 것은 결과



在野철변방어주요
○: 유서대필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강력부(姜信旭부장검사)는 12일 대필자로 지목한姜基勳씨를 구속시켰지만 18일간 의 장기수사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대필경위 및 대필일시 장소조차 밝혀내지 못해 의기소침한 모습. 이번 수사를 지휘해온姜부장검사는 검찰내에서

검찰 「姜씨 心證기소」 판결만 기다릴 뿐

점으로 검찰이 재야의 철벽방어에 당한게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 수뇌부, 난처한 표정
○: 鄭錄永검찰총장등 대검 수뇌부는 그동안의 유서대필사건 수사결과와姜基勳씨에 대한 특별한 혐의사실을 찾지 못한채 기소하게 되자 몹시 난처한 표정. 鄭총장은姜씨 기소하루전인 11일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서울지검에서는姜씨를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보고했었지만 구구 말렸으며, 검찰로서는 할만큼 다했으므로 이제 人事待天命의 자세로 법원의 판결만 기다릴뿐」이라고 심정을 토로. 또 鄭총장과 金斗禧대검차장은 이날 서울지검이 만든姜씨의 공소장을 미리 읽어보고 문맹을 잡아주는 등 다른 사건에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배려」를 해준걸.

유서대필 날조조작의 주범 정구영 검찰총장, 서울지검 강신욱 부장검사, 신상규 검사에게 항의전화를 합시다. • 검찰총장실 : 771-23(代)
• 서울지검대표전화 : 530-3114

어처구니 없는 검찰 '대필'수사

시론

지난 5월20일 나는 강기훈씨의 대리인 자격으로 전민련 상임집행위원인 최규성씨가 분신자살한 고 김기철씨의 수첩원본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하는 자리에 동행했다.

최규성씨는 담당검사에게 수첩원본을 제출하고 인수증과 수첩사본 2종을 받았다. 내눈으로 직접 본 김씨의 수첩원본은 김씨가 아니면 기재할 수 없는 내용, 예를 들면 '아버지', '둘째 누님', '막내', '큰 누님' 등으로 쓴 가족의 신상명세와 그 옆에 쓴 전화번호 및 제3자, 특히 전민련 관계자들로서는 알 수 없는 김씨 친구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김씨의 수첩임이 명백했다. 수첩의 필적은 육안으로도 김씨의 유사 필적과 동일하였다. 따라서 나는 김씨 수첩이 검찰청에 제출되었으니 이른바 유서 '대필' 시비는 곧 종결될 것으로 믿고, 가벼운 마음으로 최규성씨와 함께 검찰청을 나섰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음날 조간신문 등에는 검찰이 전민련측에서 제출한 김씨의 수첩이 조작되었고 상당부분이 가필되었다고 발표한 것으로 보도되어 있었다. 나는 이 검찰 발표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첫째는, 내가 김씨의 수첩원본을 검찰청에 제출하기에 앞서 전민련 인민위원장인 서준식씨를 비롯 한 전민련 관계자들이 수첩을 제출하느냐 마느냐의 여부에 관해서 서로 논의하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논의의 초점은 수첩 안에 기재된 전민련 간부(그 중에는 수배자도 다수 포함된 듯했다) 등의 신상명세 및 연락처 등과 관련된 것이었다. 즉 수첩이 검찰에 제출되는 경우 이들에게 가해될 신분상의 불이익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결국 모든 불이익과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원본을 있는 그대로의 형상으로 제출하기로 결연이 내렸다.

그런데 김씨의 수첩이 조작되었다는 검찰의 발표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또 느낀 명백한 사실을 송두리째 뒤집어엎는 것이었다. 둘째는, 검찰이 공익의 대표자로서 최소한의 법률적 양심을 갖고 있다면 수첩원본이 제출된 지 한 하루도 안되어 조작운운하는 발표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나의 부족한 법률상식으로도 수첩의 조작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별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물리화학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수첩을 구성하고 있는 종이의 질을 조사하고 필적을 확인해야 하며, 변조되었다면 인쇄, 어떤 방식으로 된 것인지를 밝혀야 하는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검찰은 어떻게 하루 만에 이 모든 분석을 끝내고 조작되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5월21일 나는 강기훈씨의 신변이 열려되어 명동성당 안의 농성장으로 갔다. 내가 농성장에 들어간 직후 송의여자전문대학 학생회간부 2명이 농성장을 찾아왔다. 이들은 김기철씨가 지난 4월18일 종로5가의 전민련 사무실에서 모금행사와 관련하여 이 학교 총학생회장 이보영씨에게 직접 자필로 적어 건넨 메모를 학생회 사무실내에 보관하고 있다고 그날 가지고 온 것이었다. 나는 학생 두사람을 만나보고 내 눈으로 메모원본을 보았다. 그 필적은 의심할 여지없이 육안으로도 김씨 유서와 동일한 필적이었다.

다음날 오전에는 또 성남 터사할 청년학우회 관계자들이 김씨가 생전에 남긴 병명류의 원본과 함께 김씨가 자필로 작성한 이력서의 원본을 농성장으로 가지고 왔는데, 마침 그 자리에 있던 나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5월22일 저녁 9시 <문화방송> 뉴스데스크 시간에 김씨가 어떤 회사에 제출한 자필 인사원서를 공개하는 장면과 함께 그 인사원서 일부가 화면에 방영되었다. 나는 막 외출에서 돌아온 참이었는데 텔레비전 화면에서 그 인사원서를 본 순간 전신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짜릿한 느낌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심할 나위 없이 내가 이날 아침에 본 김씨의 이력서 필적과 너무나 똑같이 보였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주로 김씨 여자친구인 홍이무개씨의 진술과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을 무기로 하여 '대필' 주장을 강변해 왔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은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홍씨의 '진술'에 관해서 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홍씨의 구체적 진술내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홍씨의 '진술'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홍씨가 적어도 90시간 이상 불법 연행되어 사실상 구속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발표에 의하면 홍씨는 형사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임이 분명하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6시간 이상 수사기관에 머무르게 할 수 없다. 이것은 홍씨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다. 5월20일 저녁 수첩을 건네줄 때 나와 최규성씨가 검사에게 홍씨를 4일 이상 수사기관에서 유치하고 조사한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검사는 조사실 밖에 부모가 와 있기 때문에 편찮다고 답변했다. 부모가 허락하면 제3자가 자식에게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법률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홍씨의 부모가 어떻게 헌법에 보장된 홍씨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 홍씨에 대한 조사는 명백히 불법이며, 따라서 홍씨가 수사기관에서 어떤 말을 했든 이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더군다나 홍씨의 진술에 대하여 법원에서 증거보전 절차까지 마쳤다고 하는데 그 절차에 강기훈씨와 그의 변호인이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 문제이다. 검찰발표에 의하면, 이 연구소는 강기훈씨가 85년경에 경찰에서 쓴 자술서의 필적이 김씨의 유서 필적과 동일하다고 판정했다는 것이다. 현재 검찰에서 강씨의 자술서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적어도 언론에 보도된 강씨 자술서의 일부와 김씨의 유서 필적은 눈으로도 뚜렷이 다르게 보인다. 나는 또 강씨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87년경 동생에게 보낸 편지의 원본을 여러 통 본 일이 있다. 나는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강기훈씨의 편지필적과 김씨의 유서필적이 같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와 강씨의 필적과 김씨의 유서가 동일하다는 검찰의 발표가 과연 사실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과학수사연구소는 필적감정에 관하여 공인된 기관이 아니다. 누가 언제 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이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것이라고 공인한 바 있는가. 수사를 검찰이 한다고 해서 모든 범죄의 수사에 경찰이 공인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 권인숙씨를 성고문하고 박종철씨를 폭로하고서 살해한 것이 경찰이 아니고 누구인가. 그러한 범죄를 은폐하고 비호한 것이 검찰이 아니고 누구였는가. 현재 민사소송에서 필적감정문제가 발생해도, 법원은 일반 사실 감정소에 위탁하여 감정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공인기관이라면 동상의 소송절차에서 왜 감정기관으로 이용되지 않는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형사소송절차에서도 필적감정 결과 증거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엄격한 검증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적어도 이 '대필'사건에서 검찰은 지금까지 법률적으로 '공인'된 최소한의 증거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매일 매뉴를 달리하여 언론에 엄청난 양의 거짓정보를 흘려 국민을 기만하고 있으니 알다지도 모를 일이다.

이석태



이 석 태

<변호사>

전대미문의 유서대필 날조 조작

* 편집자 주 : 지난 5월 10일, 시종 우울하고 비통한 분위기 속에서 고 김기철 열사의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그러나, 파소정권과 그 하수인들은 그의 동지들이 슬퍼할 여유조차 주지않고 김열사의 분신사건을 비열하게 날조·조작하기 시작했다. 백주 대로에서 학생을 쇠파이프로 때려 죽이고도 눈하나 끄떡하지 않고 집요하게 정세의 역전만을 노리고 있던 노태우 정권은 마침내 어처구니 없는 유서대필 사건을 날조한 것이다. 물론 우리는 저들의 허황된 주장을 믿지 않을 뿐만아니라 뱀거리할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며 의연하게 투쟁을 계속해 왔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조작에 맞서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이유는 파소정권의 악랄한 공세 그 자체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과 함께, 중간층의 허위의식을 깨뜨리고 진보적 양심세력과 기층 민중과의 연대성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사실 저들이 몰상식한 유서대필 시비를 벌일 수 있을 만큼 중간층은 정치적으로 보수화되고 도덕적으로도 마비되어 가고 있다. 파소정권은 바로 이점을 이용하고 있다. 스스로 수사사건을 폭로하여 정치권 전반의 도덕성 상실을 까뒤집었듯이 이제 파렴치한 스스로의 모습을 더이상 감출 수 없게 된 파소정권은 어떻게든 민주-진보세력의 도덕성을 깎아 내리지 않고는 국민대중의 불만과 분노를 잠재울 방법이 없다.

명동성당에서 국민회의 지도부와 함께 농성하며 진실을 밝히려 노력해 온 강기훈, 서준식 동지는 명동성당 농성이 힘있게 전개되지 못하는 가운데 외로운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구속된 동지들의 법정투쟁이 남은 지금, 우리는 이러한 안타까움과 함께 이제 파소정권과 그 하수인들에게 철퇴를 되돌리고, 진보적 양심세력과 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도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투쟁에 기꺼이 동참해야 할 것이다.

5월 8일 오전 9시경 김기설씨의 분신헌거가 있는 지 불과 한시간도 채 못되어 정구영 검찰총장은 분신헌장을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분신에는 조직적 배후가 있다고 단언하고 나섰다. 당일 검찰은 분신에 사용된 라이터를 유류품 중에서 확인 인수해 놓고도 언론을 통해서 분신헌장에는 인화물질이 없었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유포하였고 분신 당시 현장에 2-3명의 청년이 있었다.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열리지 않는다는 등의 확인되지도 않은 유언비어를 퍼뜨려가면서 분신의 배후가 있다는 유치한 조작극을 꾸미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기도는 현장을 목격했던 서강대 학생들의 기자회견에 의해 날조된 것임이 판명된 바 있다.

전민련은 검찰이 퍼뜨리는 사건의 의혹을 없애기 위해 8일 1시경 분신헌후의 정황을 설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하였고 검찰에 유류품을 넘겨주는 한편 검찰의 요구에 따라 임근재씨에 대한 검찰조사에 응하고 김기설씨 생전의 필적이 담긴 '사회국 업무일지'를 넘겨주는 등 검찰 수사에 협조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전민련의 순수한 협조를 역이용하여 13일부터 홍성은, 이영미, 이지혜, 송국영, 김문정씨 등이들은 우연히도 모두 연약한 여자들이었다. 주변 인물들에 대한 강제연행과 불법구금수사를 강행하더니 이윽고 18일 전대미문의 '유서대필=자살방조'사건을 날조 조작하기에 이른다.

필적문제의 허와 실

검찰의 '자살방조'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의 감정결과 유서의 필적이 김기설씨의 필적과 서로 다르며 강기훈씨의 필적과 동일함으로 유서는 강기훈씨에 의해 대필되었다는 가설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고 강기훈씨를 자살방조혐의로 기소한 현 시점까지도 검찰은 이러한 가설에서 한발자욱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주장의 대전제가 되는 필적문제 그 자체가 신빙성에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검찰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많은 증거자료와 증인들에 의해서 밝혀졌다.

먼저 유서와 김기설씨 필적과의 문제를 보면

검찰이 김기설씨의 필적이라고 인정하고 감정한 것은 '85년 김씨가 누나에게 보낸 조카생일 기념책자 속표지의 글씨'와 '89년 주민등록 분실신고서, 단 두가지이다. 그밖의 김기설씨 필적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감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강기훈씨 필적이라고 억지로 우겨 말하고 있다. 국과수가 감정한 이 두가지 필체는 모두 김기설씨의 정자체 필적이고 성남의 김병희씨가 김씨가 생존시 맡겨 두었던 짐 속에서 발견한 '90년 이력서'의 필체와 똑같은 필적이다. 국과수는 5월 15일자 감정서에서 유서필체와 비교하면서 "동일성 여부를 논단할 수 없다"라고 결론 맺고 있다. 검찰은 이를 "같은 것인지 판정할 수 없음은 곧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고 자의적으로 확대발표하고 이를 유서대필의 근거로 삼았다.

그런데 김기설씨의 정자체 필적인 '90년 이력서'가 발견된 성남에서 '터사랑학우회 창립총회 방명록'을 비롯한 여러개의 김기설씨의 속필체 필적이 발견되고, 이 필적들은 이미 발견된 '승의여전의 메모', 홍성은씨가 검찰에 제출한 '김기설씨가 전해준 메모'와 필적이 동일하며 국과수 스스로가 인정한 바와 같이 '수첩' 및 '유서'의 필적과 동일한 것이다. 그 후에 발견된 한겨레 신문에서 공개한 원주 전교조 지회 개소식 방명록은 김기설씨의 속필체이며 성남 민청련의 업무일지 및 상황일지에는 김기설 씨의 정자체와 속필체가 모두 나타나 있다. 국과수도 인정하고 있듯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자체와 속필체를 모두 가질 수 있으며 김기설씨가 생전에 두가지 필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김씨의 가족, 고향친구, 오랫동안 같이 활동했던 방송통신대생 박경민씨 등이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유독 상기한 두가지 필적 자료만을 고집하고 있으며 홍성은씨에게 김기설씨가 전해준 메모의 경우 그 메모가 누구 것인지 먼저 밝히고 그것을 유서 필적과 비교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그 메모의 필적이 강기훈씨의 자술서 필적과 동일하다는 국과수의 감정을 앞세워 그 메모가 강기훈씨 것이라고 단정해 들어가는 선후가 뒤바뀐 의도성을 보여주고 있다.

* 수첩문제 : 검찰의 주장은 강기훈씨 수첩 중 전화번호 기재부 일부를 찢어내고 새로 작성된 것을 끼워넣었다는 것인데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억지이다. 검찰이 강기훈씨 것이라고 주장하는 수첩의 스케줄 부분은 100% 김기설씨의 것이고 30여군데서 김씨의 고유의 스케줄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검찰은 스케줄이 강기훈씨의 것이라는 증거를 단 하나도 찾아 내지 못하고 있으며, 과수연의 찢어진 3매의 절취선의 붙일치 감정도 실제 이음새의 미세한 붙일치에 관한 것으로 (한겨레신문 7/13) 감정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판정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또 설사 전화번호부 부분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것이 수첩이 변조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 사회국 업무일지 : 국과수 감정결과 강씨의 필적과 동일하다고 판정하였으나 그 후 검찰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그 필적중에 일부가 사회부 이동진 부장과 사회부 임무영 부장의 필체임이 밝혀짐에 따라서 국과수의 감정결과와는 그 신빙성을 잃게 되었으며 강씨가 업무일지를 조작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여지없이 거짓임이 검찰 스스로의 조사결과에 의해 드러난 것이다.

* 송의여전메모 : 이보령씨 등 송의여전 학생 4명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에서도 메모는 김씨가 직접 작성해서 전해준 것을 보관하였다가 공개한 것이었음이 확인되었고 그 필체가 육안으로 보아도 수첩의 필체 및 내용과 동일하고 유서의 필체와도 동일하므로 수첩이 조작되고 유서가 대필되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허구임이 밝혀졌다.

* 터사랑학우회 방명록 : 이 방명록의 필체는 한장에 여러사람의 성명과 필체가 함께 나오므로 검찰이 도저히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더우기 이 방명록이 진본인 것은 연합통신 기자의 현장취재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 전민련 발표에 앞서 보도한 것으로 그 신빙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 원주 방명록 : 이 자료는 원주 전교조지부에서 직접 한겨레신문사에 보내 공개한 필적으로 원본이 현재 한겨레신문사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교조 강원지부 교과위원장 광대순씨가 직접 공개증언(5/25 한겨레) 하고 있으므로 만일 검찰이 이 자료를 조작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한겨레 신문사와 전교조를 모두 조작범으로 몰아야 하는 위험부담에 처하므로 검찰이 언급하고 있지 않다.

* 성민청 업무일지 및 상황일지 : 이 자료는 김기설씨가 성남 민청련 교선 부장으로 재직시 작성한 것으로 89년 9월 22에서 90년 1월 31에 이르는 4개월 사이에 걸친 구체적 활동상황을 기록한 것이고 김씨의 정자체, 흘림체가 기록되었으며 사인펜, 볼펜, 세라믹펜 등 다양한 필기도구로 쓴 것이 모두 확인되고 있다.

* 강기훈씨 구속 이후에도 김씨의 유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으며 이는 강기훈씨의 결백을 밝힐 수 있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될 것이다.

강기훈씨의 필적과 관련해서

검찰이 강기훈씨의 필적이라고 하여 국과수에 감정한 것은 85년 강기훈씨의 경찰진술서와 83년경의 화학노트이다. 그런데 검찰은 강기훈씨 집 압수수색 당시 수첩 5권, 노트 5권, 명함 4장, 학생증 1매, 수강신청서 등 3부, 유인물, 책자 다수 등은 집안을 뒤져 필적이란 필적은 모두 훑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화학공식과 영어로 주로 작성되어 있는 화학노트와 작성시일이 오래된 경찰진술서만을 감정대상으로 삼는 것은 검찰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87년 울산교도소에서 보낸 옥중편지는 봉합엽서로 겉면에 우체국 소인과 교도소 직인, 강기훈씨 본인의 이름이 나오고 뒷면에 검열필 도장과 편지 본문이 나오는 자료로 교도관 입회하에 작성된 움직일 수 없는 본인의 필체이다. 그리고 그 필체가 육안으로도 유서필체와 다름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런데, 검찰은 “옥중 편지가 진짜 강씨 편지인지 믿을수 없다” (5/23 조선)며 일축하고 있다.

* 기타 '민중의 당 보고서'의 강씨 필체, 5월 19일, 5월 27일 기자 앞에서 공개적으로 직접 작성한 필체, 6월 28일 검찰에서 작성한 자술서 16장 등은 본인의 필적을 위장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감정할 수 없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제 입으로 85년도 김기설씨 필적감정에 대한 감정결과를

발표하면서 "2·6년의 시간차이는 기술적으로 필적감정에 별 영향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견해" 라고 말했으며 (조선 5/20) 강씨가 충분한 양의 자술서를 써서 제출하면 그것을 감정하여 유서와의 동일성 여부를 가리겠다고 공언해온 바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필적감정의 문제점

검찰은 김기설씨의 유서를 강기훈씨가 대필했다는 억지주장을 계속하면서 그런 억지주장의 유일한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 감정 결과를 들고 있다. 그런데 과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은 믿을만 한 것인가?

국민들에게 '국립'과 '과학'이라는 미명으로 '의심'을 불허하는 기관이 바로 국립과학연구소인 것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내무부 산하 기관으로써 전혀 공인된 기관이 아닐 뿐더러, 박종철군 고문치사를 심장마비사로, 이철규군의 타살을 익사라고 주장하는 등 '정권이 저지른 범죄에 있어서는 그 정부기관으로서의 본성을 드러낸 바 있는, 정권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인 것이다. 국과수는 4·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던 김주열군의 최루탄 사망을 익사라고 허위 발표한 전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와같이 국과수는 그 출발부터 부도덕한 정권의 유지에 철저히 이용되어졌고 민주화운동의 탄압과 민주인사를 탄압하는 데 최선봉에 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제·어용기관에서조차도 초차도 초기에는 김기설씨 유서대필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하지 못해 왔다. 즉 김기설 열사의 정서체와 속필체에 대해서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하고 있어 그 異同 여부를 판별할 수 없다.」라고 감정 결과를 발표했었다. 다른지, 같은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국과수의 판정결과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같은 것인지를 판정할 수 없다'를 '다르다'라고 단정적으로 발표하였고 또한 발표 내용도 강기훈씨의 5년전 자술서와 유서의 필적이 '같다'라는 결과외에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누가 어떻게 감정 했는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국과수의 필적감정의 신뢰도는 과연 어떤가?

국과수의 문서분석실 한 연구원마저도 '똑같은 사람이 쓴 글씨라도 필법 등을 달리하면 동일인 판정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며 필적감정의 불확

실성을 시인하고 있다.

또한 필적 감정은 아무리 '과학'을 이용한다고 하여도 감정원의 경험과 확률에 근거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되도록 많은 감정원의 의견과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판정을 해야하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사인 하나만 분석하는 데도 한달 이상이나 소요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차없는 높은 확률을 얻기 위해서인 것이다. 그러나 소위 유서대필 사건에 있어서 국과수의 감정은 항상 단 하루만에 그것도 허위감정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던 문서분석실장 혼자서 감정하는 등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필적감정의 기본 원칙도 지키지 않은 조작 혐의가 짙은 판정이었던 것이다. 이런 조작혐의 짙은 판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건은 한참 필적쟁이 진행되고 있었던 5월 23일 한겨레신문사에서 사실을 알고 검사, 검찰 직원과 함께 국과수 문서분석실장도 압수수색에 참가한 사실이다. 이는 자기 스스로 자신의 판정에 대한 불안감의 발로였다고 보여진다.

이렇듯 필적감정의 위험성 때문에 전민련은 처음부터 공개적인 수사와 함께 공개적인 감정을 요구했으며 필요하다면 필적감정의 기술이 발달해 있는 외국감정기관에도 의뢰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모든 가능한 증거를 통해 진실을 파헤치려 하기 보다는 진실의 은폐와 조작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에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전민련의 제안은 거부된 상태이고 검찰은 '비과학'을 '과학'으로 둔갑시켜 칼날을 휘두르는 만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김씨 분신 전후의 강기훈씨 행적

검찰은 "강씨가 지난 1월 22일 김씨에게 홍양을 소개해준 뒤 홍양과 전혀 접촉이 없었다가 김씨가 분신하기 직전 홍양을 집중적으로 만났고 (5/22 한국일보), 강씨가 검찰수사 시작 직후 '자체 대책회의'를 열어 김씨 유서의 필적감정에 대비, 자신의 대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모종의 전략을 세웠으며 이 사건 관련자들이 이 전략대로 행동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5/20 조선)"는 등 강씨가 김씨 자살에 깊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강씨가 김씨 분신 전에 홍씨를 만난 것은 5월 5일 이영미씨 집에서, 김진수씨의 생일 축하모임을 갖기 위한 것뿐이었다는 것이 이들의 진술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들은 단국대 동문들로 이영미씨와 홍성은씨는 자주 만나는 친구사

이었고 동문회 모임등을 통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으며 이날 모임도 그 전 동문회 자리에서 약속한 것이었다.

또, 분신 이후 10일 강기훈씨와 홍성은씨의 만남은 검찰의 터무니 없는 분신배후 수사착수 발표에 불안을 느낀 홍성은씨가 학교선배이자 고 김기설씨와 같이 일했던 강기훈씨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만나자고 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자리에서 강씨는 홍성은씨를 안심시키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면 된다고 하면서 다만 공안당국의 그동안의 행태로 봐서 그들의 조작수사에 걸려들지 않도록 일반적인 수사 대응방법을 알려주었을 뿐인 것이다. 12, 13일의 모임 또한 김씨 장례식 이후 홍씨를 위로하고 8일 이후 자주 만나게 된 동문들끼리 술자리를 같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전후 정황이나 모임에서의 전체적인 이야기의 흐름은 도외시하고 단지 검찰의 조작수사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몇마디 말만을 앞뒤를 자르고 부각시켜 마치 그 모임들이 무슨 음모적인 대책회의나 되는 듯이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서의 강기훈의 진술과 여러 증인들이 증언하고 있듯이 분신 이전 강씨와 김씨가 만난 것은 5월 5일 저녁 전민련 사무실에서 여러사람과 함께 만난 것이 전부이다. 김씨의 행적이 불분명한 것은 5월 7일 오전 10시경 김병희씨와 헤어져 연대쪽으로 간 후 저녁 7시 반경 홍성은씨를 만날 때까지와 8일 새벽 5시 반부터 분신 때까지이다. 그런데 이 시간에 강씨는 전민련 사무실에서 상황업무를 보고 있었고 이는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증언해 주고 있으며 저녁에 이영미씨를 만나 어버이날 생일선물을 산 뒤 집에 들어왔고 이튿날 김씨의 분신 소식을 안 것은 TV뉴스를 통해서였다.

김씨가 스스로 자신의 분신 결심을 밝혔으며 주위의 만류에도 그 결심이 확고했다는 것은 5일 밤 같이 지낸 이지혜, 송국영씨의 증언(동아일보 5/25 인터뷰), 홍성은씨의 증언(동아 5/23 인터뷰기사) 등 에서 확인되고 특히 홍성은씨는 7일 밤 김씨를 만났을 때 김씨가 "유서를 써야 하는 등 신변정리를 위해 집에 가봐야 한다"며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고 증언하고 있다.

전민련 관계자들이 7일 밤 연세대로 김씨의 분신을 막아 달라며 찾아온 이지혜씨를 통해 김씨의 분신 결심을 처음 알고 이를 만류하기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인 사실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검찰 진술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홍성은씨 진술의 신빙성

검찰이 강기훈씨의 유서대필 혐의와 관련 국과수의 감정 이외에 유일한 증거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홍성은씨의 진술이다. 검찰 발표에 의하면 홍씨가 김씨 분신 이틀 뒤인 5월 10일 "강씨가 종로5가 카페에서 내 수첩에 김기설이란 이름과 전민련 전화번호 2개를 써넣었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이 진술을 근거로 강씨가 유서대필을 숨기기 위해 홍씨에게 검찰에 불려가면 김씨가 직접 써준 것으로 말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작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 진술도 검찰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5월 13일의 1차 조사에서는 홍씨가 스스로 수첩의 글씨를 내 보이면서 김씨가 써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2차 진술에서 검찰의 강요 하에 번복한 것이다. 또 강씨가 김기설 이름을 써놓은 것에 대한 검찰의 추궁에 대해 홍씨가 "강씨가 장난으로 김기설...이란 글씨를 써 넣어 기분이 나빴다."는 답변이외에 강씨가 유서 대필을 은폐하기 위해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힌 바 있다. 그나마 상기한 진술도 7월 10일 홍성은씨와 강기훈씨의 대질 심문에서 홍은성씨가 잘못된 진술이라고 스스로 강력히 부인하여 검찰의 강요에 의한 진술임이 밝혀졌다.

검찰은 또 "수첩 변조에 사용된 볼펜의 색깔과 변조된 내용이 원본과 다른점 등 수첩조작 사실을 증명할 홍모양의 진술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 (5월 28일 한국일보)라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 진술은 20일 저녁 전민련이 수첩을 검찰에 제출하자 국과수 검정이 나오기도 전인 21일 기자들에게 "수첩은 육안으로 보기에 강씨가 다른 수첩에다 옮겨 적은 위조품" (5월 22일 경향신문)이라고 발표하는 등 수첩변조에 관해 예단을 가진 상태에서 21일 검찰이 홍양을 재차 소환 조사하면서 강요하여 얻어낸 진술이다. (6월 18일 한겨레신문) 실제 홍양이 김씨로부터 수첩을 전달 받았던 7일밤 울면서 자살을 만류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8일날 원순용씨에게 수첩을 전달할 때에도 울고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에 수첩의 내용이나 글자 색깔까지 상세히 기억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홍양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5월 13일 검찰 연행이후 7월 13일 현재까지 2달여 동안 검찰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고 있으며 머리를 깎이는 등 심리적으로 극히 위축되어 있고 친한 친구의 죽음의 슬픔에서 채 벗어나지도 못한 상태에서 검찰의 신체적·정신적 압박 속에서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홍양의 진술은 그 진실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며 검찰의 강압적 수사와 유도 심문에 의해 만들어진 허위 진술임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홍성은양은 고 김기설씨의 절친한 친구로 김기설씨의 죽음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이다. 비통에 잠겨있는 홍양을 정치적 사기극의 노리개로 사용하려는 비열한 작태를 검찰은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절친한 친구를 잃은 사람에게 친구의 죽음을 날조하기 위한 장기적 밀실수사의 고통은 육체적 고문보다 더욱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정치적 고문을 자행하는 것이다. 또 세계적인 인권기구인 아시아 워치나 엠내스티 등의 관계자도 참고인을 두달씩이나 억류해 둔 사례는 세계 인권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라고 말하고 있다.

검찰은 홍양에 대한 불법적 장기 억류를 즉시 중단하고 홍양이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참고인에 대한 불법적 수사

참고인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 유도 심문과 허위 진술을 이끌어 내려는 검찰의 의도는 승의여전 학생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과정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김기설씨가 자신의 수첩에 적혀있던 각종 집회의 일정을 옮겨 적어준 메모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필적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자 기자 회견을 통해 그 메모를 공개함으로써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 증인이 된 승의여전 총학생회장 이보령의 3인에 대한 검찰 참고인 조사가 지난 6월 13일에 있었다.

법률적 허용시간인 6시간을 훨씬 넘긴 16시간에 걸쳐 각기 분리된 채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난 뒤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유

서를 강씨가 쓴 것인만큼 메모도 강씨가 쓴 것이 아니라, △강씨를 김씨로 잘못 알지는 않았느냐 △김씨로부터 메모를 건네 받은 뒤 중간에 누군가에 의해 바뀌 치기 당한 것이 아니라 △전민련의 사주를 받았느냐 식으로 추궁당하는 한편 검찰측에 유리한 답변을 하도록 강요 받았으며 "김씨가 아닌 강씨로부터 메모지를 전달 받았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쓰도록 수차례 강요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6월 26일 동아일보)

참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불법수사는 강기훈씨의 여자친구인 이영미씨에 대한 조사에서 그 편법성과 부당성을 더욱 잘 드러내고 있다. 이영미씨에 대한 조사는 총 세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첫번째는 5월 16일 잠시 얘기할 것이 있다며 데려갔다가 56시간에 걸친 강제수사를 벌였던 일이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갔다 조사를 받고나온 이영미씨는 검찰수사 의도가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고 조작하기 위한 것임을 감지하고 그 후 계속된 출두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가 지난 6월 25일 검찰청으로 강씨를 면회간 자리에서 검찰 수사관들에게 강제로 폭행을 당해가면서 끌려가 3시간 동안 억류되었다가 풀려나왔다. 이영미씨의 완강한 진술거부로 자신들의 사건 조작에 차질을 빚게 된 검찰은 7월 20일 또다시 이씨를 직장으로 찾아와 강제 연행해 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엉뚱하게도 검찰이 아닌 치안본부를 동원하여 47일전 집수색 때 나온 몇몇 사회과학 서적과 시국 관련 유인물을 뒤늦게 문제 삼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등 편법적인 보복수사를 자행한 것이다. 이는 자신들이 수사 중인 피의자의 여자친구를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여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 시켜 보겠다는 검찰의 반인륜적이고 치졸한 작태를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이다.

참고인에 대한 편법적 보복수사는 임무영씨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구속으로 나타났다. 애초에 강기훈씨 사건에 대한 참고인으로 강력계에 연행된 임무영씨에게 별다른 진술을 얻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전민련 업무일지"가 강기훈씨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뒤엎을 만한 업무일지에 대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있게 되자 임무영씨를 공간계로 넘겨 집시법 혐의로 전격 구속시켜버린 것이다.

참고인들에 대한 보복수사의 부당성은 서준식 인권위원장의 경우에 이르러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서준식 위원장은 김기설씨가 생존 시 '속초 동우전문대 사건', '원진레이온 사건'등을 같이 처리하면서 깊이 믿고 따르던 선배이자 동지였다. 김기설씨는 죽기 전날 임근재, 이보은씨와 술을 먹는 자리에서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서준식 선배와, 후배에게 자상한 김선택씨를 가장 존경한다고 말했었고, 이러한 생각을 김씨가 남긴 유서에서 자신의 뒷일을 두분 선배께 부탁한다는 표현으로 나타냈다. 그런데, 검찰은 바로 그 유서의 내용을 문제삼아 두 사람을 수배하고 분신 배후로 몰아갔던 것이다. 그런 자신의 조작 가설에 부합할 만한 아무런 근거를 발견하지 못한 검찰은 범국민대책회의와는 아무 관련이 없었던 서준식씨를 대책회의의 집회, 시위주도 혐의로 무리하게 영장을 발부하였으며 서준식씨의 자진출두 이후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자 이번에는 보안관찰법이라는 전근대적인 법률을 적용하여 기소를 획책하고 있다. 서준식씨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자신의 양심과 정치적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단 한가지 이유로 17년간의 부당한 옥살이를 하고 석방되어 자신의 평생을 인권운동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다. 이번에 적용되는 보안관찰법은 국제적 인권단체의 비난을 받아왔고 그 위험 요소로 말미암아 정권 스스로도 적용을 삼가해오다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하게 된 법률이다.

이번 검찰의 무리한 법적용을 통한 서씨에 대한 인신구속은 죽은 김씨와 생전에 같이 활동한 인연으로 해서 김씨의 의로운 죽음과 강씨의 결백을 밝힐 각종 증거자료에 대해 누구보다도 분명한 증언을 할 수 있고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가장 앞서서 투쟁해 온 서준식씨의 발을 묶어 보자는 파렴치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외에도, 검찰의 참고인에 대한 부당한 수사는 본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 강제적 수사가 자행된 이보은, 김현수, 이동진씨 등의 경우와 조사 후에도 계속 본인과 가족에 대한 검찰의 협박으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직장을 잃어버리게 된 송국영, 이지혜씨의 경우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특히, 본 사건 변호인인 이석태 변호사에 대한 검찰출두 요구는 소송의 한 당사자인 피고인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하고 있는 변호인에 대해 수사할 하겠다는 압력을 통해 소송의 정당하고 공정한 진행을 저해하는 사법사상 유래를 찾아 보기 힘든 횡포라 할 수 있다.

법적으로 보장된 형사피의자의 정당한 자기 방어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들과 강 기훈씨의 노력이 검찰조사 과정에서 심각하게 방해받았다는 사실은 검찰이 이 사건의 진상규명보다는 자신들의 조작음모를 완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검찰의 공정수사 약속은 공염불

강 기훈의 검찰출두에 앞서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의 공정수사 요청에 대해 정구영 검찰총장은 6월 14일 경감실 신부를 만난 자리에서 "이미 이 사건은 만 천하에 공개된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겠다." (6/15 한겨레) "공정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조사하겠다." (6/15 조선)라고 공언했고 강신욱 강력부장은 강씨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수시로 변호사의 입회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막상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검찰은 초기 변호사의 면회를 일체 거부하고 그 후 일주일여 두번 변호인의 접견권마저 극도로 제한했으며 사전에 약속한 가족들의 면회는 물론 언론에 조사과정을 공개하거나 조사 과정에 변호인의 입회는 전혀 보장하지 못했다. 더 나아가 검찰은 지속적인 잠 안재우기 고문과 이 사건과 전혀 연관없는 혁노맹 사건에 대한 처벌 위협 등을 통해 허위 진술을 유도하려 하였다.

애초에 검찰의 유서대필 혐의 발표가 있자마자 5월 19일 강기훈은 한 점 부끄러운 것이 없기에 자신은 결백하며 홍씨에 대한 밀실수사 등의 검찰 수사태도의 문제를 들어 공개되고 안정된 제3의 장소에서의 검찰조사에는 필적감정을 포함한 어떠한 조사에도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고 또 KNCC 인권위에서도 공정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공개조사의 구체적 제안을 전민련과 검찰 양쪽에 공식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어떠한 성의있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검찰은 전민련이 성의있는 태도로 진실 규명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현장유품, 업무일지, 수첩 등을 검찰의 요구가 있자마자 지체없이 넘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품들을 이용하여 각종 악선전과 조작혐의들을 들쭉꾸는 등 상식이하의 사건 조작에 몰두하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검찰은 강기훈씨에게 자살방조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므로, 강기훈씨는 사회각계의 양심세력에 호소로써 자신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려 했던 것이고 그 결과 KNCC

인권위의 지상발표와 정의구현 사제단의 “홍양 공개증언과 강씨에 대한 공개수사” 요구가 있었으며 대한변협 회장이 검찰총장을 찾아가 공정수사를 촉구하였던 것이다. 또 추기경은 직접 국무총리를 방문하여 강기훈씨의 인권보장과 이 사건의 공정수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국무총리는 공정수사의 약속을 하는 등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정수사를 위한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유서대필주장은 정치적 음모

이러한 사회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검찰의 불법성과 무리함은 바로 검찰이 “유서대필”이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을 통해 김기설씨의 의로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점을 역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이 “유서대필” 문제를 들고 나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시점은 5월 18일 고 강경대군의 장례식이 있던 5월 투쟁의 최고점이었다. 수첩변조 문제를 들고나와 구속영장을 신청한 날도 5월 25일 김귀정 학생이 죽은 날이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만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7월 11일 국가안전기획부가 경북 안동대생들에 대한 분신 배후 수사를 벌이다 뚜렷한 혐의를 잡지 못하자 연행한 학생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한 사실은 일련의 ‘분신배후’ 날조 조작이 단순히 검찰 차원이 아닌 안기부가 개입하고 있는 현정권의 총체적인 민족민주운동 탄압책동의 일환임을 시사해주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제 3장 정의와 진실의 대장정

1. 유서대필 조작사건 1심 공판 일지
2. 유서대필 조작사건 검찰 논고문
3. 변론요지서
4. 강기훈 최후 진술서
(자료) 고 김기설 열사 유서 감정서

유서대필 조작사건 1심 공판 일지

1. 유서대필 조작사건 1차 공판 (1991.8.28)

유서대필 혐의로 구속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 동지의 1심 첫 공판이 지난 8월 28일 오전 10시 서울 형사지법 417호 대법정 약 2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지법 합의25부 노원옥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려 검찰 직접 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서울지검 공안 2부 안종택 검사, 서울지검 강력부 신상규, 송명석 검사 등 검사 4명과 유현석, 김창국, 박용일, 조영황, 이석태, 박연철, 장기욱 변호사 등 10여명의 변호인과 강기훈동지의 어머니 권태평씨, 신창균 전 민련 상임의장, 지선공동의장, 언론노련 권영길위원장 등이 지켜 보는 가운데 시작되었다.

10시 10분 경 강기훈 동지가 입장하였고, 강기훈 동지의 모두진술에 앞서 김창국 변호사는 “범죄 일시, 장소를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에도 검찰은 공소장에 유서대필의 일시, 장소를 ‘4월 27일 부터 5월8일 사이 서울 이하 불상지’로 막연히 기재해 강기훈씨로 하여금 알리바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다”면서 “이런 공소는 기각돼야 마땅하다”며 공소사실 중 자살방조부분의 경우 일시 장소를 명기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상의 기본적 사항마저도 기재하지 못한 점을 들어 공소기각이 당연함을 주장하였다.

이어 20여분에 걸친 모두진술에서 강기훈 동지는 “나는 절대로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강경대 군 치사사건 이후 고양된 국민들의 반정부 투쟁분위기를 가라 앉히고 민주화운동을 억압하려 했던 정치적 음해 사건이며 본인은 그 희생양”이라고 말했다. 강기훈 동지는 또 “검찰 수사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이 영터리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 수 있었다”며 그 증거로 전민련에서 검찰에 제출한 사회국 업무일지가 자신의 필적과 동일하다는 국과수의 감정결과가 나왔으나 이 업무일지는 사회국

소속의 세명의 부장이 함께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검찰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제시한 혁노맹 관련자 2명이 쓴 메모지와 혁노맹 의사록을 본인의 필적으로 간주하고 그 글씨를 확대해 유서글씨와 비교해 놓은 사진 첩 100여장을 만들어 놓았으나 결국 다른 사람의 글씨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국과수는 서로 다른 5명의 글씨를 같다고 판정하였을 뿐만아니라 그 글씨가 본인의 글씨라고 감정했다는 것이다.

강기훈 동지는 또 검찰 수사과정시 잠안재우기 고문과, 손찌검, 모욕적인 언사, 건장한 수사관이 자신을 둘러싸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등 항거 불능의 반노이로계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김기설 동지의 여자친구인 홍성은씨에 대해 “너와 성은이는 그렇고 그런 사이였는데 기설이한테 성은이를 소개시켜 주면서 관계를 끊어버렸기에 홍성은이가 내게 불리한 진술을 한것이 아니냐” 는 등 인간적으로 견딜 수 없는 수모를 안겨 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기훈 동지는 “시민으로써 검찰의 출두요구에 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 했으나 이 사건 수사가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민주세력의 민주화운동을 잠재우려는 정치적 의도가 뻔하게 보였기 때문에 출두시기를 늦췄다고 말했다. 강기훈 동지는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으로 많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명예회복, 특히 김기설 동지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모두진술을 끝마쳤다.

검찰은 4시간 동안 진행된 직접신문에서 강기훈 동지에게 ▲김기설동지 분신 전날 밤 김기설동지의 여자친구인 홍성은양으로 부터 “내일 김기설 동지에게 무슨일이 생기면 김동지 아버지에게 연락을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서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끊었다는 홍성은양의 진술과 ▲ 김기설동지 분신 뒤 홍성은양및 단국대 후배 김진수씨 등과 잇달아 “대책회의”를 가졌다는 부분 ▲업무일지, 수첩 등을 조작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강기훈 동지는 이에 대해 업무일지, 수첩을 조작하거나 ‘대책회의’를 가진 적은 없고 김동지 분신 전날 밤 홍성은양으로 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며칠전 술자리에서 홍성은 양을 늦게 귀가 시킨 일로 인해 미안하다는 말만 한 것이며 김동지에게 무슨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